

16개 시·도 고용지표 비교연구

2011. 8

연구기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제 목 차 례〉

제1장 머리말	4
제2장 OECD 30개 회원국 고용지표 비교	6
1. 고용의 양과 질 지표	6
2. 주요 사회경제지표와 비교	7
3. 소결	10
제3장 16개 시·도 고용지표 비교	11
1. 고용의 양	11
2. 고용안정(근속년수)	17
3. 비정규직	20
4. 임금	24
5. 노동시간	27
6. 고용평등	31
7. 노조 조직률	33
제4장 고용의 양과 질 지표 산출	34
1. 고용의 양과 질 지표 산출방식	34
2. 고용의 양과 질 지표 산출 결과	35
제5장 16개 시·도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비교	42
1. 기술통계	42
2. 상관분석	43
3. 시도별 지표와 순위	44
4. 16개 시·도별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비교	47
제6장 맺는 말	58
〈참고문헌〉	60
〈부록〉 16개 시·도 주요 고용지표	61

제1장 머리말

국제노동기구(ILO)는 1999년 제87차 ILO 총회에 제출한 사무총장 보고서 “report of the general director: decent work”에서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를,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정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조건을 가진 생산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남녀 모두를 위한 기회”로 정의하고 있다. 당시 소마비아 사무총장은 “ILO의 관심사는 양질의 일자리다. 그 목표는 일자리 창출 자체가 아니라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고용의 양은 고용의 질과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한다.

국내에서도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고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면서 고용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의 양산은 노동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로부터 앞날에 대한 희망을 빼앗아 간다. 결혼과 자녀 출산을 망설이게 만들고, 이혼과 자살을 늘려 수많은 가정을 파괴한다. 경제적으로는 내수기반을 약화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지지기반을 잠식하고, 사회적으로는 사회경제적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하지만 정부는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여전히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늘리기 따위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고용의 질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무지는 고용의 양과 질 지표에 대한 비교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고용의 양과 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고용의 양도 늘리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요즈음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작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는 지역 일자리 창출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올해는 민선 5기를 맞아 지역 일자리 공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일자리 공시제는 고용의 양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고용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고용의 질을 개선하면 고용의 양이 줄고, 고용의 질을 저하시켜야 고용의 양이 늘어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조차 자주 발견된다.

지난 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을 비교 분석한 데 이어(김유선 2010), 여기서는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을 비교 분석한다. 제2장에서는 먼저 지난 해 수행한 ‘OECD 30개 회원국 고용지표 비교’의 주요 결과를 소개한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위치를 파악한 뒤 시도별 고용지표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와 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원자료를 사용해서 16개 광역시·도의 고용지표를 비교분석한다.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심층

적인 이해가 가능해 질 것이다. 제4장에서는 시도별 고용의 양과 질 지표 산출방식과 결과를 소개하고, 제5장에서는 16개 광역시·도 고용의 양과 질 지표를 비교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서 그 함의를 살펴본다.

제2장 OECD 30개 회원국 고용지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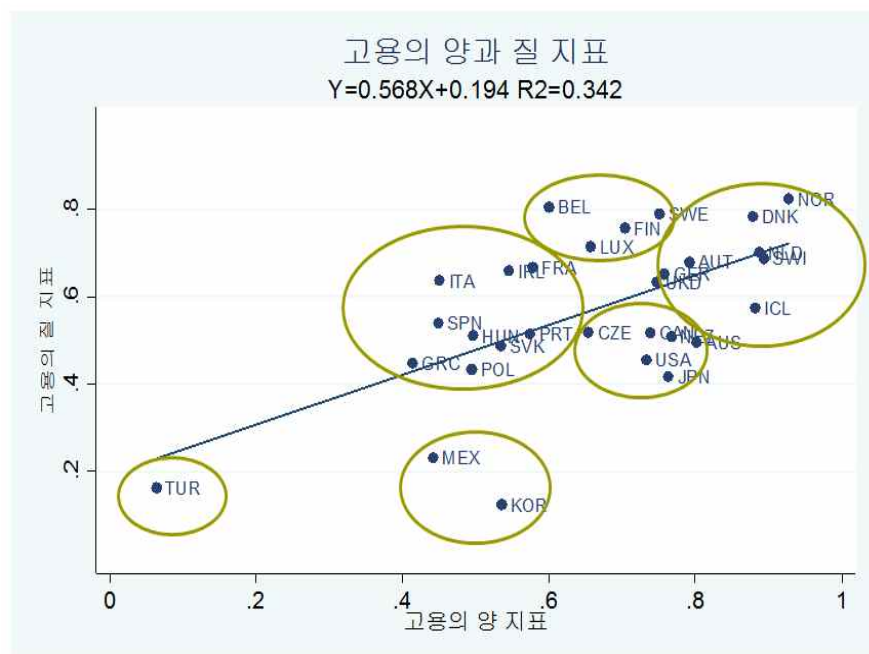
1. 고용의 양과 질 지표

OECD 30개 회원국의 고용의 양과 질 지표를 비교한 결과 발견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의 양과 질 지표는 상관계수가 0.568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이는 대다수 국가에서 고용의 양과 질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한국은 고용의 양은 22위로 중하위권이지만, 고용의 질은 30위로 최하위다. 한국은 회귀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한국은 고용의 양과 질이 괴리된 일종의 이상치(outlier)라 할 수 있다.

셋째,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노르딕 국가와 스위스, 네덜란드 등 유럽대륙 국가는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양호하다.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 앵글로색슨 국가는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떨어진다. 일본은 앵글로 색슨 국가에 가까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넷째, 한국과 멕시코, 터키는 고용의 양과 질 모두 가장 열악하다. 한국은 고용의 양은 동유럽 체제전환국이나 남부유럽과 유사하지만, 고용의 질은 가장 낮다. 한국은 남부유럽이나 앵글로색슨보다 고용의 질이 크게 떨어지며, 멕시코와 가장 가까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주요 사회경제지표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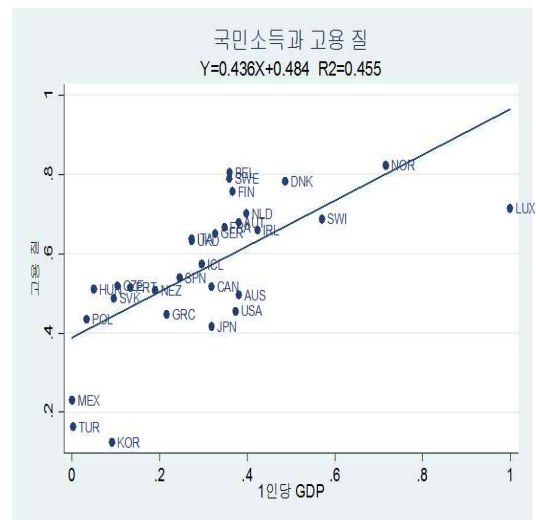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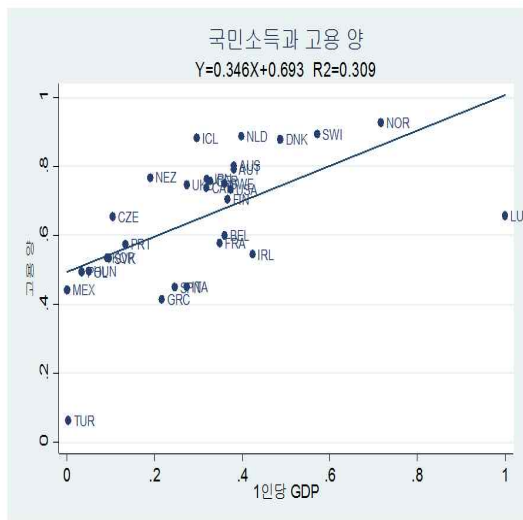
1) 국민소득(1인당 GDP)

2009년 한국의 1인당 GDP는 1만7,085달러로 OECD 29개국 중 25위다. 구매력지수를 반영하면 2만7,954달러로 22위다. 이에 비해 고용의 양 지표는 22위고, 고용의 질 지표는 30위다.

첫째, 1인당 GDP와 고용의 양은 상관계수가 0.512고, 1인당 GDP와 고용의 질은 상관계수가 0.575로, 1인당 GDP 즉 국민소득과 고용의 양과 질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한국은 고용의 양은 국민소득 수준에 상응하지만, 고용의 질은 국민소득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국민소득 수준에 못 미치는 질 낮은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둘째,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노르딕 국가와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 유럽대륙 국가는 국민소득과 고용의 양, 고용의 질 모두 최상위권이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앵글로색슨 국가는 국민소득은 중간 정도이고, 고용의 질은 국민소득 수준에 못 미친다. 여기서도 일본은 앵글로 색슨 유형에 가까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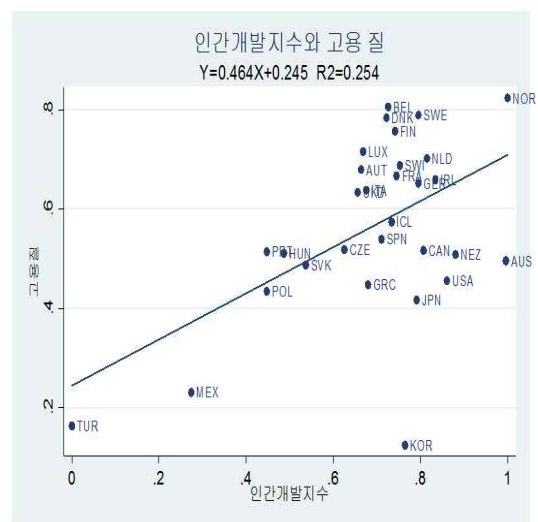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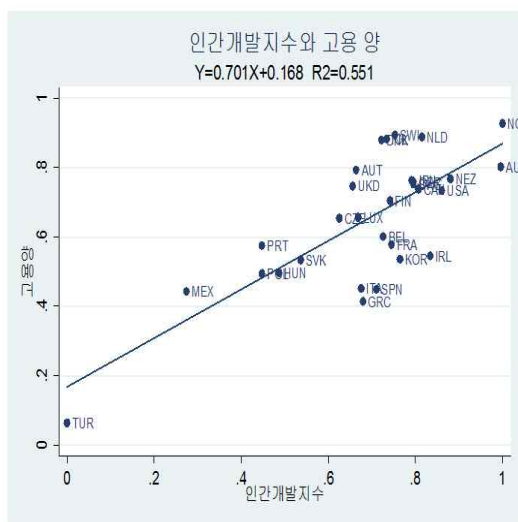
셋째, 한국과 멕시코에서 고용의 양은 국민소득 수준에 상응하지만, 터키는 국민소득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고용의 질은 한국과 멕시코, 터키 모두 국민소득 수준에 못 미친다.



2) 인간개발지수

UNDP가 발표한 인간개발지수(HDI)에서 한국은 OECD 30개국 중 11위다. 불평등을 고려한 인간개발지수(IHDI)는 OECD 28개국 중 24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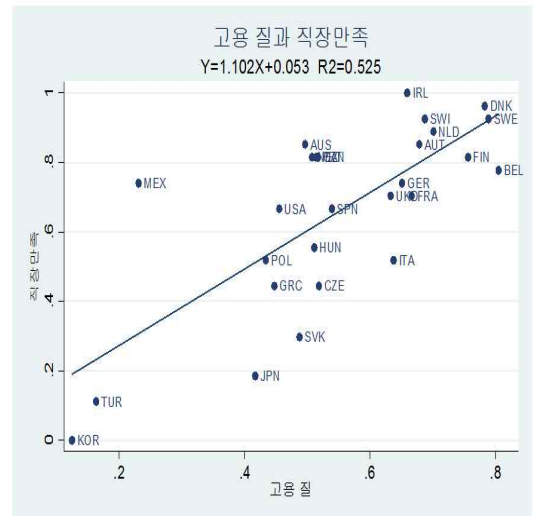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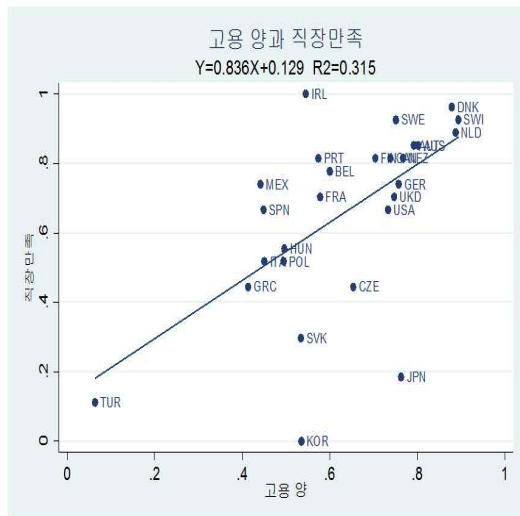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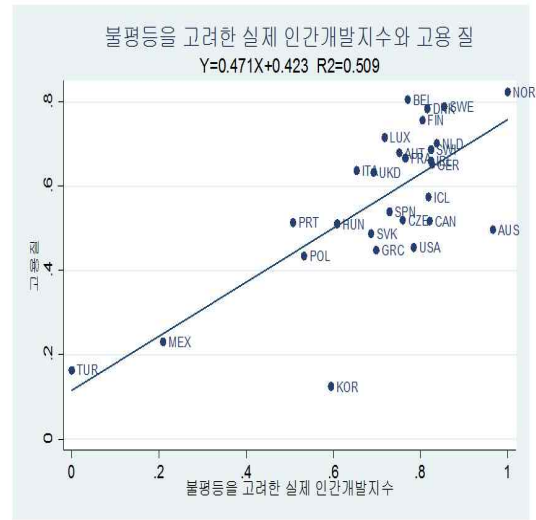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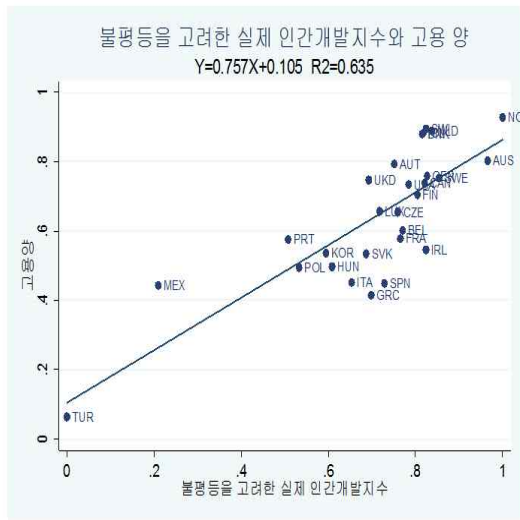
첫째, HDI와 고용의 양은 상관계수가 0.701이고, HDI와 고용의 질은 상관계수가 0.464로,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고용의 양이 HDI 수준에 못 미치고, 고용의 질은 크게 못 미친다. 이는 한국에서 고용의 양과 질이 잠재적 인간개발지수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을 말해준다.



둘째, IHDI와 고용의 양은 상관계수가 0.758이고, IHDI와 고용의 질은 상관계수가 0.642로, HDI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이는 (불평등을 고려한) 실제 인간개발지수(IHDI)가 잠재적 인간개발지수(HDI)보다 고용의 양과 질 지표와 더욱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짐을 의미한다. 한국은 고용의 양이 IHDI 수준에 상응하지만, 고용의 질은 그 격차가 줄었어도 여전히 IHDI 수준에 못 미친다. 이는 고용의 양은 불평등을 고려한 실제 인간개발 수준에 근접하지만, 고용의 질은 여전히 실제 인간개발 수준에 못 미치는을 의미한다. 현실의 불평등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에서 고용의 질은 인간개발 수준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인 것이다.

3) 직장만족도

노동자들의 직장만족도는 한국이 OECD 30개국 중 30위다. 고용의 양과 직장만족도는 상관계수가 0.836이고, 고용의 질과 직장만족도는 상관계수가 1.102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고용의 양은 한국보다 낮은 나라가 여럿 있지만 한국은 직장만족도와 고용의 질 모두 가장 낮다.



<표1-1>에서 직장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변량 회귀분석하면, 고용의 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고용의 질은 계수 값이 0.899***로 0.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고용의 질 지표가 노동자들의 직장만족도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한국 노동자들의 직장만족도는 고용의 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표1-1> 직장만족도 영향요인 회귀분석 결과(관측치 27개)

	(모형1)			(모형2)		
	계수	P값		Coef.	P>t	
고용의 양 지표	0.328	0.175	***	0.266	0.353	*
고용의 질 지표	0.899	0.001		0.826	0.012	
1인당 gdp				0.173	0.674	
상수	-0.044	0.747		-0.010	0.951	
모형의 설명력	0.543			0.527		

3. 소결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서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고용의 양은 22위, 고용의 질은 30위, 고용의 양과 질을 종합한 고용지표는 29위로 최하위권이다. 한국은 앵글로색슨이나 남부유럽은 물론 동유럽 체제전환국에도 못 미치며, 멕시코에 가까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둘째, 유연안정성(Flexicurity) 문헌은 ‘노르딕>앵글로색슨>유럽대륙>남부유럽’ 순으로 유연안정성이 높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고용의 양과 질 지표는 ‘노르딕>유럽대륙>앵글로색슨>남부유럽’ 순으로, 유럽대륙이 앵글로색슨보다 뒤떨어진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노르딕과 유럽대륙 국가는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양호하며, 앵글로색슨 국가는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낮다. 일본은 앵글로색슨 유형에 가까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셋째, OECD 회원국은 대부분 고용의 양과 질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고용의 양과 질이 괴리된 이상치(outlier)다. 고용의 양은 국민소득(1인당 GDP)과 (불평등을 고려한) 실제 인간개발 수준에 근접하지만, 고용의 질은 국민소득과 실제 인간개발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한국 노동자들은 경제성장과 인적자원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질 나쁜 일자리를 제공받고 있는 것이다.

넷째, 한국 노동자들의 직장만족도는 OECD 30개국 중 30위다. 다른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고용의 질은 계수 값이 0.899***로 0.1% 유의수준에서 직장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고용의 질 지표가 노동자들의 직장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OECD 30위인 직장만족도는 OECD 30위인 고용의 질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해준다.

제3장 16개 시도 고용지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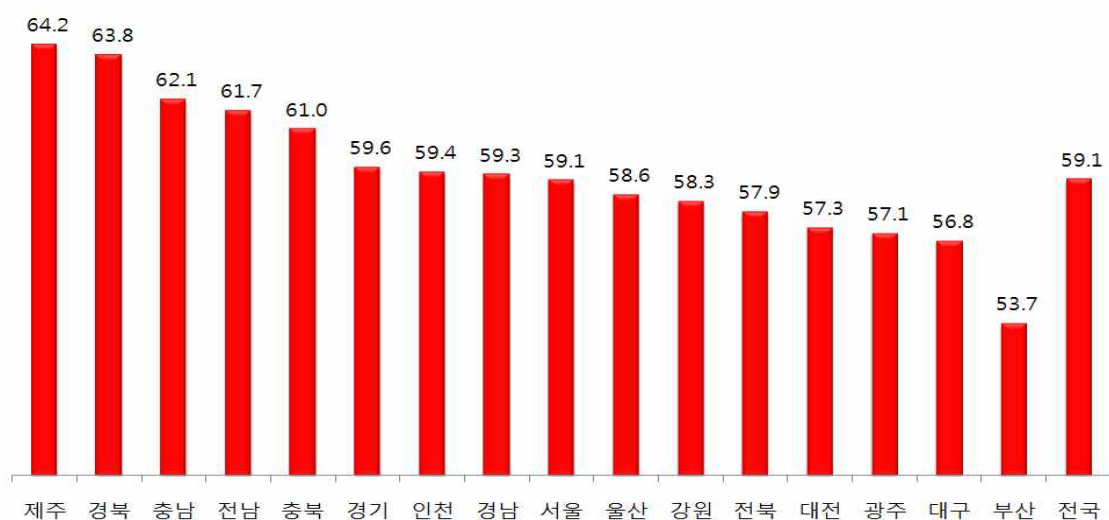
1. 고용의 양

전통적으로 고용의 양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들 지표는 실망실업자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함에 따라, 요즈음은 고용률을 더 많이 사용한다. 통계청이 실시한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2010년 9월 각 시도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임금노동자 비율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용률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은 제주(64.2%), 경북(63.8%), 충남(62.1%), 전남(61.7%) 등 광역도는 높고, 대전(57.3%), 광주(57.1%), 대구(56.8%), 부산(53.7%) 등 광역시는 낮다. 이는 광역도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많기 때문인데,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인천(59.4%)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서울(59.1%), 울산(58.6%), 대전(57.3%), 광주(57.1%), 대구(56.8%) 순이며, 부산(53.7%)이 가장 낮다.

고용률 (2010년 9월)



2)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text{경제활동인구} \div \text{생산가능인구} \times 100$)도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경북(65.4%), 제주(65.3%), 충남(64.2%), 전남(62.8%) 등 광역도가 높고, 대구(59.1%), 광주(58.8%), 대전(58.7%), 부산(55.7%) 등 광역시는 낮다.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인천(62.4%)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서울(61.8%), 울산(60.6%), 대구(59.1%), 광주(58.8%), 대전(58.7%) 순이며, 부산(55.7%)이 가장 낮다.

경제활동 참가율 (2010년 9월)



3)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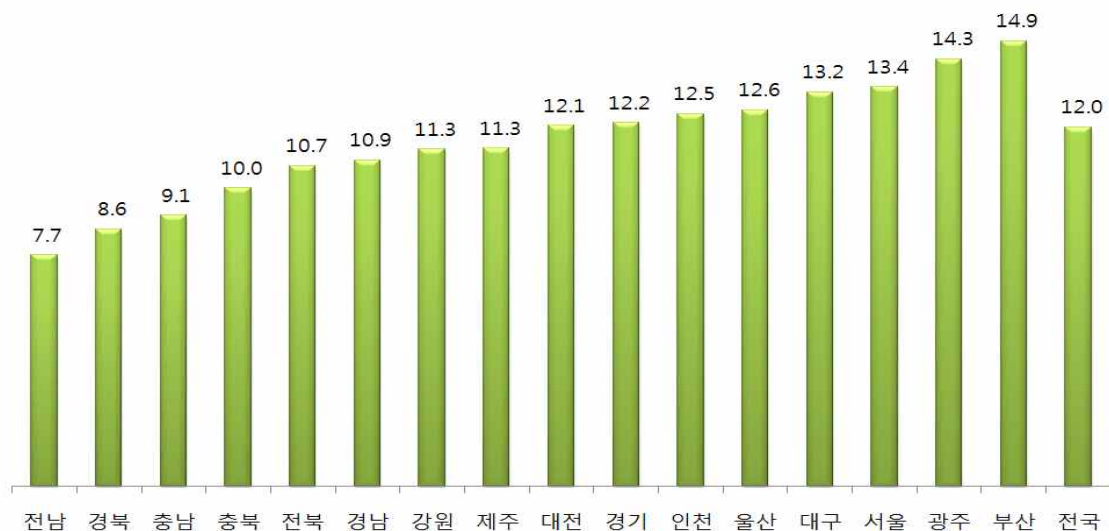
실업률($\text{실업자} \div \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은 고용률이나 경제활동참가율과는 거꾸로 인천(4.9%), 서울(4.3%), 대구(3.8%) 등 광역시는 높고, 제주(1.8%), 전남(1.8%), 충북(2.0%), 전북(2.0%) 등 광역도는 낮다.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인천(4.9%)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서울(4.3%), 대구(3.8%), 부산(3.6%), 울산(3.4%), 광주(2.8%) 순이며, 대전(2.5%)이 가장 낮다.

실업률(2010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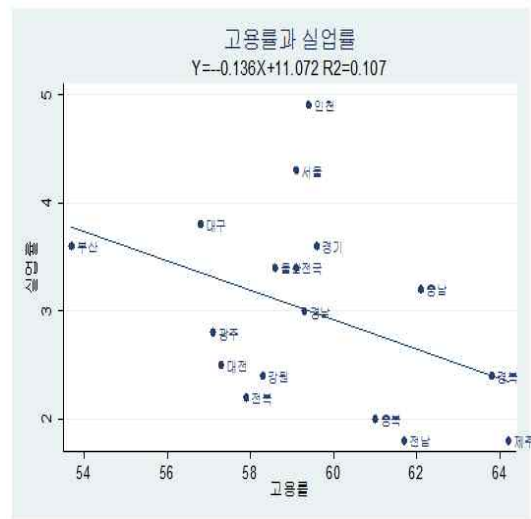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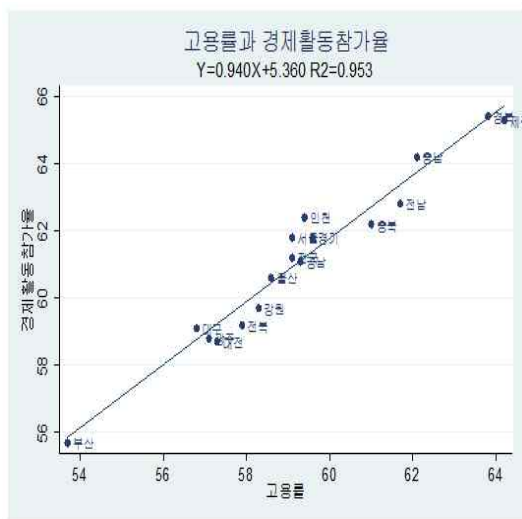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이 고용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나 잠재실업자가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나 취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공식 실업자 이외에 18시간미만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생과 60세 미만 '쉬었다' 응답자를 사실상 실업자로 보고 실제 실업률을 추계하면 12.0%로, 정부 발표 실업률(3.4%)의 3.5배가 된다. 실제 실업률도 공식 실업률과 마찬가지로 광역시는 높고 광역도는 낮는데,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부산(14.9%), 광주(14.3%), 서울(13.4%), 대구(13.2%), 울산(12.6%), 인천(12.5%), 대전(12.1%) 순으로 공식 실업률과 순위가 바뀐다.

실제실업률(2010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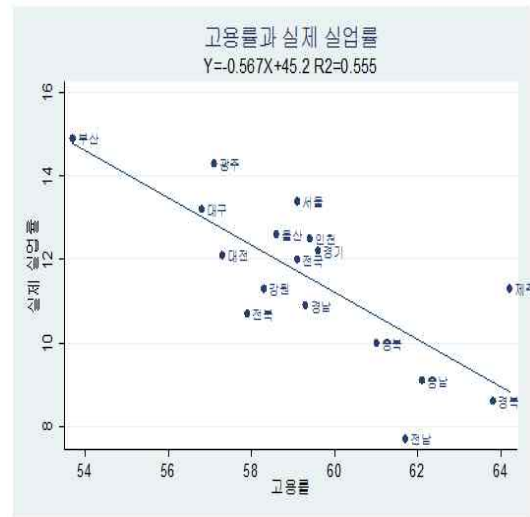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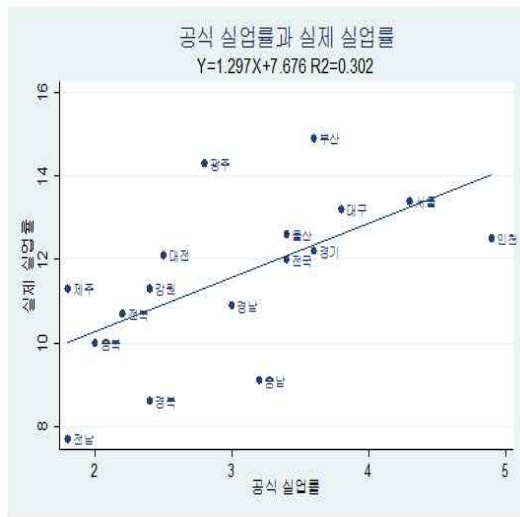
4)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과 실제 실업률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상관계수가 0.940***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두 지표 모두 제주와 경북이 가장 높고, 부산이 가장 낮다.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인천, 서울, 울산이 높고 부산이 가장 낮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상관계수가 -0.136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인천이 가장 높고 서울이 그 다음으로 높다. 부산은 고용률은 가장 낮지만 실업률은 중간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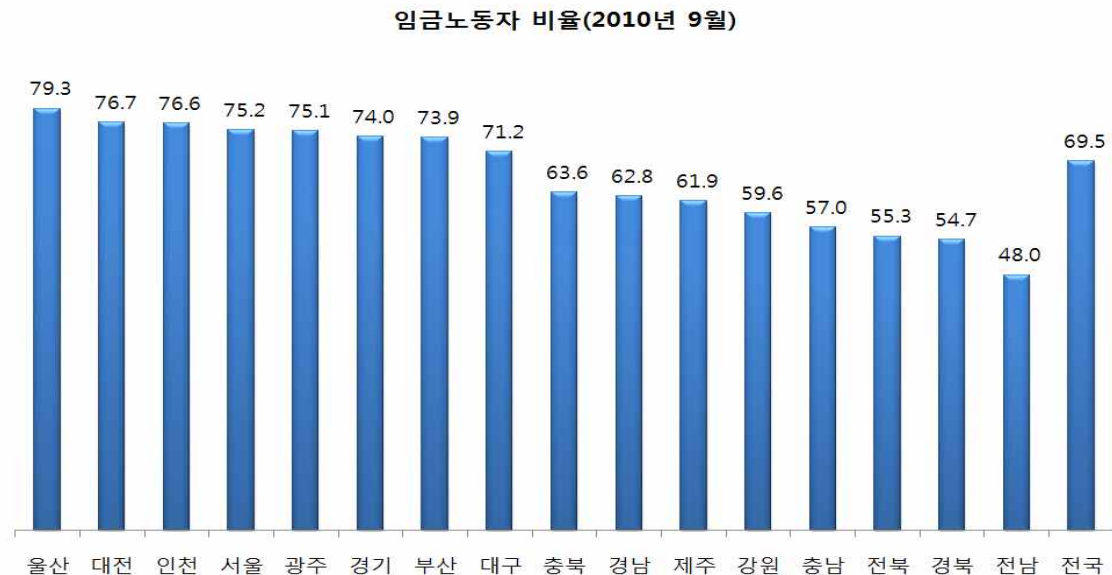
공식 실업률과 실제 실업률은 상관계수가 1.297***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공식 실업률과 실제 실업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다. 공식 실업률이 가장 높은 인천(4.9%)과 가장 낮은 대전(2.5%)이 실제 실업률은 12.5%와 12.1%로 엇비슷하다. 공식 실업률은 부산(3.6%)과 울산(3.4%)이 엇비슷하지만 실제 실업률은 부산(14.9%)이 가장 높고 울산(12.6%)은 낮은 편에 속한다.

앞서 고용률과 공식 실업률은 상관계수가 -0.13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용률과 실제 실업률은 상관계수가 -0.567***로 0.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보다 실제 실업률이 고용사정을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5) 임금노동자 비율과 공식고용(상용직+ 고용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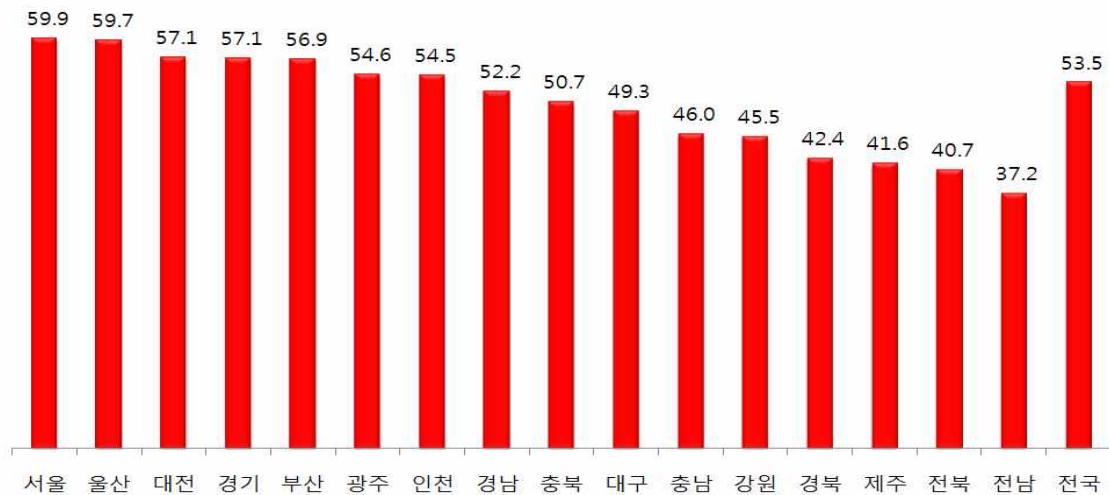
취업자 대비 임금노동자 비율(임금노동자÷취업자×100)은 울산(79.3%), 대전(76.7%), 인천(76.6%), 서울(75.2%), 광주(75.1%) 등 광역시가 높고, 전북(55.3%), 경북(54.7%), 전남(48.0%) 등 광역도가 낮다. 광역도가 고용률은 높으면서 임금노동자 비율이 낮은 것은 그만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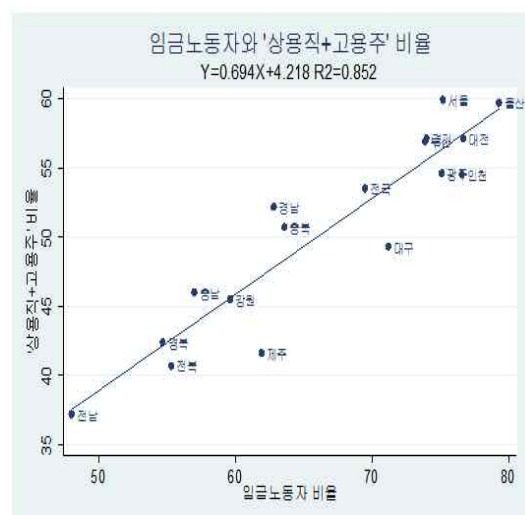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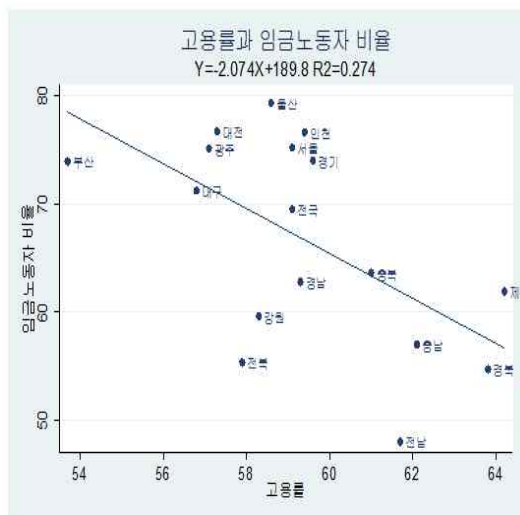
임금노동자 중 상용직,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주는 근대적 임노동관계인 ‘공식고용’으로 정의하고, 임금노동자 중 임시직과 일용직,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전 근대적인 ‘비공식고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취업자 대비 공식고용(상용직+ 고용주) 비율은

53.5%로, 서울(59.9%), 울산(59.7%), 대전(57.1%), 부산(56.9%), 광주(54.6%), 인천(54.5%), 대구(49.3%) 등 광역시가 높고, 경북(42.4%), 제주(41.6%), 전북(40.7%), 전남(37.2%) 등 광역도가 낮다.

공식고용 비율(2010년 9월)



임금노동자 비율과 공식고용 비율은 상관계수가 0.694***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임금노동자 비율과 공식고용 비율 모두 자본제적 임노동관계의 대위변수로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고용안정(근속년수)

ILO와 OECD는 고용안정의 대위변수로 근속년수를 사용한다. 여기서는 단기근속자 비율(근속년수 1년 미만)과 장기근속자 비율(근속년수 10년 이상), 직장유지율(장기근속자 비율 - 단기근속자 비율), 평균 근속년수 4가지 지표를 비교한다.

1) 장기근속자 비율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는 전남(27.3%)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울산(26.1%), 전북(24.5%), 경북(23.4%), 충북(22.7%) 순이며, 인천(15.1%)이 가장 적다.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울산(26.1%), 부산(19.7%), 광주(19.5%), 대전(19.2%), 서울(18.3%), 대구(17.6%), 인천(15.1%) 순이다.

장기근속자 비율(2010년 9월, 근속 10년이상)



2) 단기근속자 비율

근속년수 1년 미만인 단기근속자는 경남(27.2%), 전남(27.5%)이 가장 적고, 대전(35.2%), 광주(35.6%)가 가장 많다.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부산(29.3%), 울산(30.5%), 서울(31.8%), 대구(33.2%), 인천(34.4%), 대전(35.2%), 광주(35.6%)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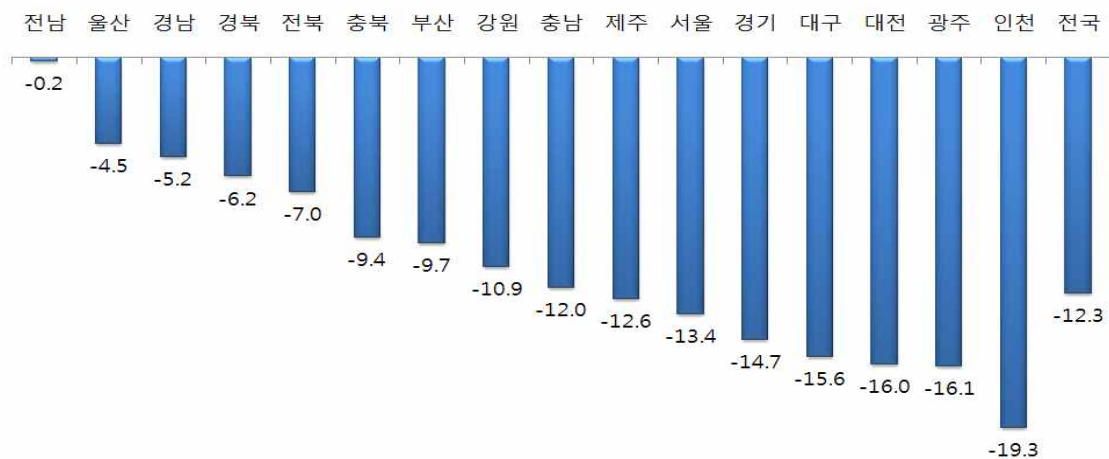
단기근속자 비율(2010년 9월, 근속 1년미만)



3) 직장유지율

직장유지율(장기근속자 비율 - 단기근속자 비율) 전국 평균은 -12.3%다. 그만큼 장기근속자보다 단기근속자가 많다. 직장유지율은 전남(-0.2%)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울산(-4.5%), 경남(-5.2%), 경북(-6.2%), 전북(-7.0%) 순이며, 인천(-19.3%)이 가장 낮다.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울산(-4.5%), 부산(-9.7%), 서울(-13.4%), 대구(-15.6%), 대전(-16.0%), 광주(-16.1%), 인천(-19.3%) 순이다.

직장유지율(2010년 9월, 장기-단기)



4) 평균 근속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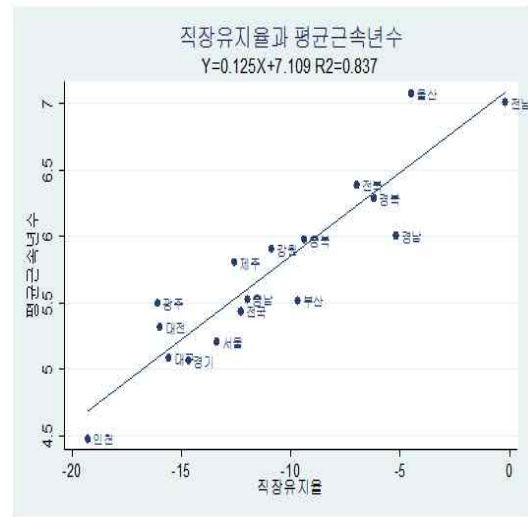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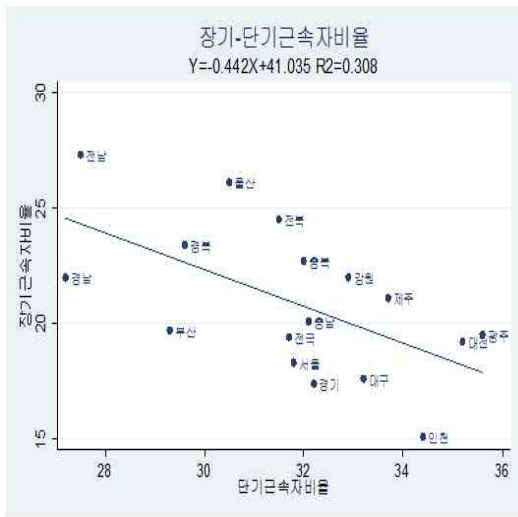
근속년수 평균값은 5.4년으로 울산(7.1년)과 전남(7.0년)이 가장 길고, 대구(5.1년), 경기(5.1년), 인천(4.5년)이 가장 짧다.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울산(7.1년), 부산(5.5년), 광주(5.5년), 대전(5.3년), 서울(5.2년), 대구(5.1년), 인천(4.5년) 순이다.

평균 근속년수 (2010년 9월)



5) 장기-단기 근속자 비율과 평균 근속년수

장기근속자와 단기근속자 비율은 상관계수가 -0.442^* 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직장유지율(장기근속자 비율 - 단기근속자 비율)과 평균 근속년수는 상관계수가 0.125^{***} 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장기근속자가 많은 시도일수록 단기근속자가 적고, 직장유지율이 높을수록 평균 근속년수가 높음을 말해준다.



3. 비정규직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기간제, 파트타임, 임시일용직 3가지만 파악할 수 있다.

1) 기간제

기간제는 대구(10.0%), 경북(11.8%)이 가장 적고, 서울(19.2%), 제주(21.3%)가 가장 많다.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대구(10.0%), 부산(12.6%), 광주(15.3%), 울산(15.7%), 대전(16.4%), 인천(17.0%), 서울(19.2%) 순이다.

2) 시간제

시간제는 경남(8.6%), 경기(8.8%)가 가장 적고 강원(11.6%), 제주(12.1%)가 가장 많다.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울산(9.4%), 서울(10.3%), 인천(10.4%), 부산(10.7%), 대구(10.8%), 광주(11.4%), 대전(11.4%) 순이다.

3) 임시일용직

임시일용직¹⁾은 경남(25.9%)과 충남(29.0%)이 가장 적고, 대구(40.8%)와 제주(42.5%)가

가장 많다.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서울(30.9%), 울산(31.7%), 부산(31.8%), 대전(34.7%), 광주(36.3%), 인천(37.5%), 대구(40.8%) 순이다.

시간제 비율(2010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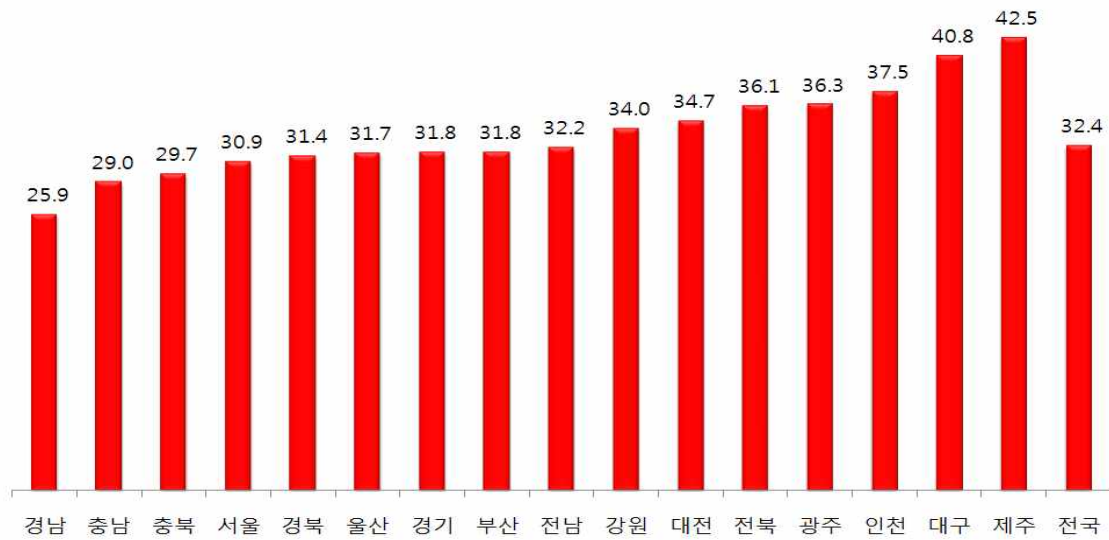


기간제 비율(2010년 9월)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년 9월)에서 임시일용직은 689만명(40.3%)으로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임시일용직 541만명(32.4%)과 크게 차이가 난다. 이는 가중치에서 비롯되는 문제로 판단되는데, 여기서는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라 시도별 실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임시일용직 비율(2010년 9월)



4) 비정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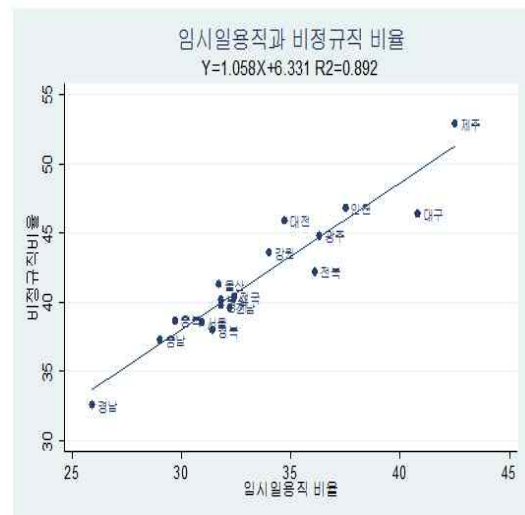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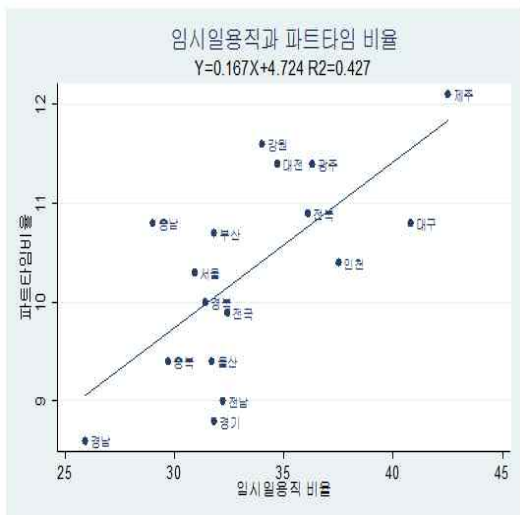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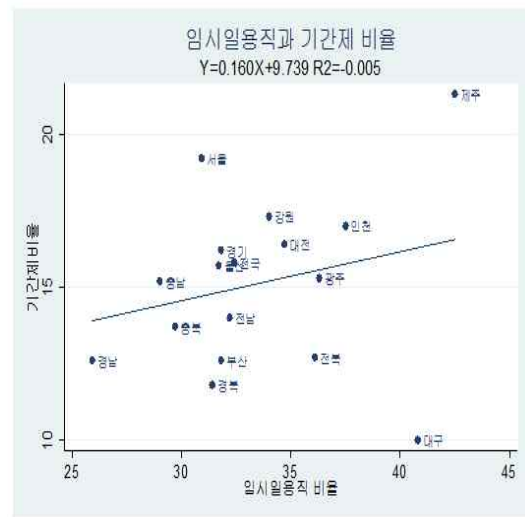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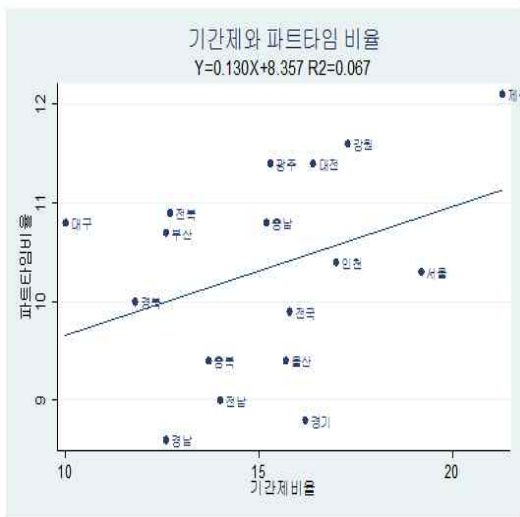
기간제, 파트타임, 임시일용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정의하면 대구(32.6%)가 가장 적고 제주(52.9%)가 가장 많다.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대구(32.6%), 대전(37.3%), 인천(38.0%), 광주(39.6%), 부산(39.8%), 울산(45.9%), 서울(46.8%) 순이다.

비정규직 비율(2010년 9월)



5) 기간제와 파트타임, 임시일용직과 비정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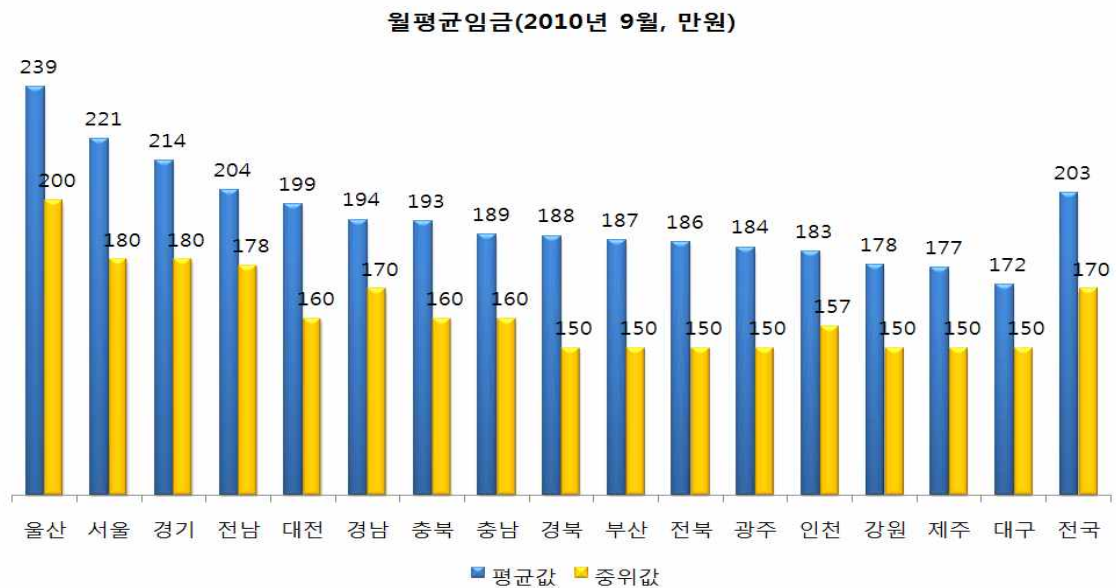
지역별 기간제 비율과 파트타임 비율은 상관계수가 0.13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임시일용직 비율과 기간제 비율도 상관계수가 0.160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이에 비해 지역별 임시일용직 비율과 파트타임 비율은 상관계수가 0.167**로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모형의 설명력도 42.7%에 이른다. 이는 파트타임 노동자가 대부분 임시일용직을 겸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는 기간제와 파트타임, 임시일용직 비율 모두 가장 높다.



4.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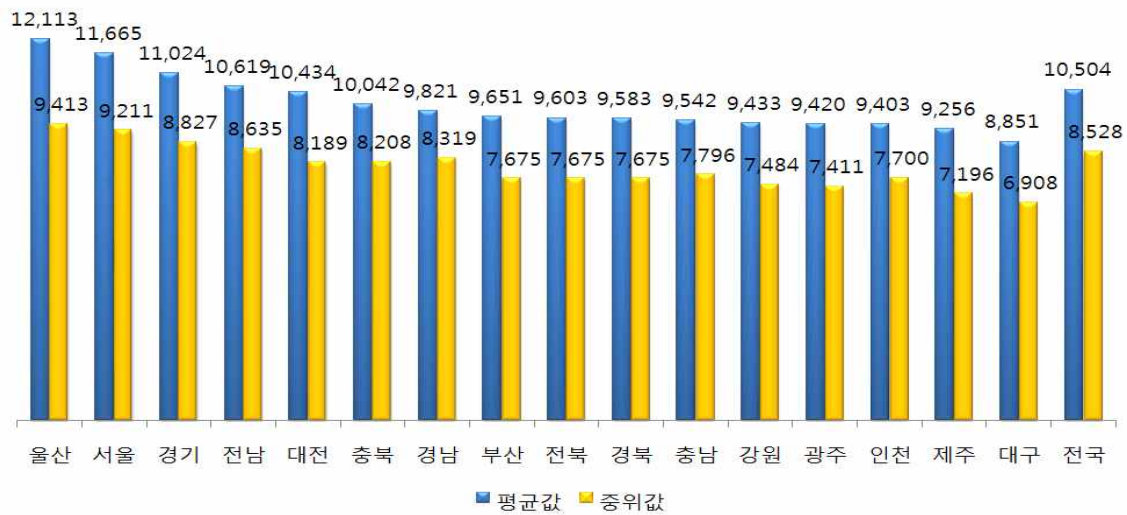
1) 임금수준

월평균임금은 울산(239만원)이 가장 높고 대구(172만원)가 가장 낮다.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울산(239만원), 서울(221만원), 대전(199만원), 부산(187만원), 광주(184만원), 인천(183만원), 대구(172만원) 순이다. 중위값 기준으로는 울산(200만원), 서울(180만원), 대전(160만원), 인천(157만원) 순이며, 부산, 광주, 대구는 모두 150만원으로 가장 낮다.



시간당 임금도 울산(1만 2,113원)이 가장 높고 대구(8,851원)가 가장 낮다.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울산(12,113원), 서울(11,665원), 대전(10,434원), 부산(9,651원), 광주(9,420원), 인천(9,403원), 대구(8,851원)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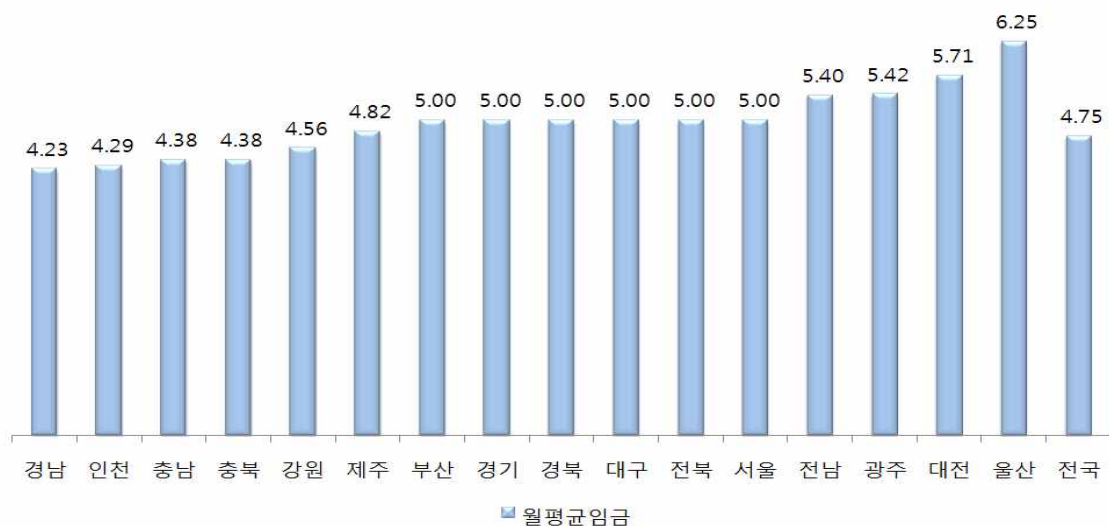
시간당임금(2010년 9월, 원)



2) 임금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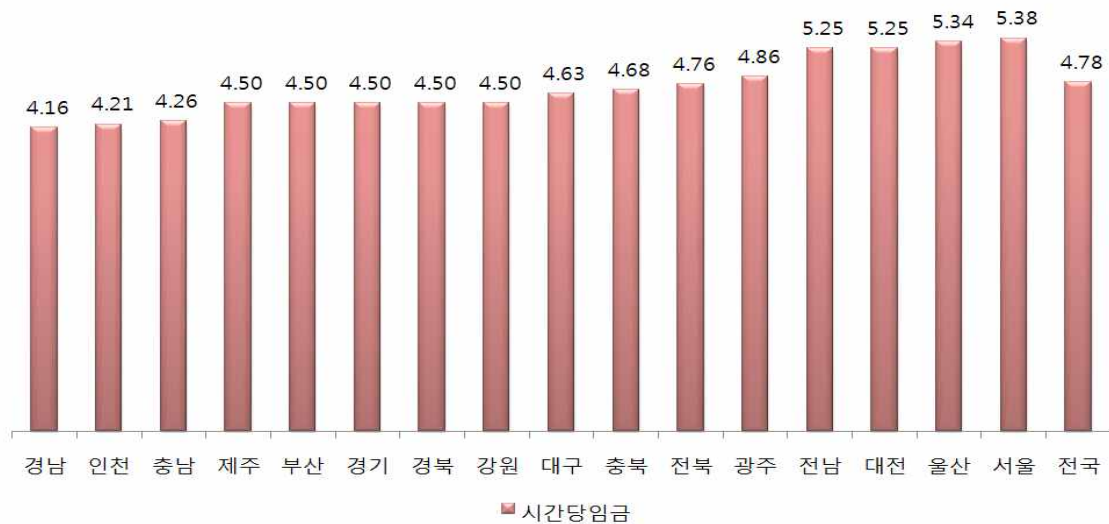
월평균임금 기준으로 임금불평등(P9010)은 경남(4.23)이 가장 작고 울산(6.25배)이 가장 크다.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울산(6.25배)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대전(5.71배), 광주(5.42배), 서울(5.00배), 대구(5.00배), 부산(5.00배) 순이며, 인천(4.29배)이 가장 작다.

임금불평등(2010년 9월, p9010, 배, 월임금기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임금불평등(P9010)은 서울(5.38배), 울산(5.34배), 대전(5.25배), 전남(5.25배)이 가장 크고, 경남(4.16배), 인천(4.21배), 충남(4.26배)이 가장 작다.

임금불평등(2010년 9월, p9010, 배, 시간당임금기준)



3) 저임금계층

월평균임금 기준으로 저임금계층(중위임금의 2/3 미만)은 경기와 울산이 각각 22.1%로 가장 적고 대구가 34.8%로 가장 많다.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울산(22.1%), 서울(22.9%), 인천(27.5%), 부산(29.7%), 광주(29.9%), 대전(29.9%), 대구(34.8%) 순이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도 저임금계층(중위임금의 2/3 미만)은 울산(19.5%)과 경기(21.0%)가 가장 적고, 대구(34.5%)가 가장 많다.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울산(19.5%), 서울(21.7%), 인천(26.2%), 대전(28.4%), 부산(29.0%), 광주(30.0%), 대구(34.5%) 순이다.

4)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시간당 임금이 2010년 법정 최저임금(4,110원)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미달자 전국 평균은 10.0%로, 대구(15.0%)가 가장 많고 경기(7.6%)와 울산(7.4%)이 가장 적다.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대구(15.0%)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광주(13.3%), 부산(12.2%), 대전(12.1%), 인천(10.0%) 순이며, 서울(8.6%)과 울산(7.4%)이 가장 적다.

저임금계층(2010년 9월, 월임금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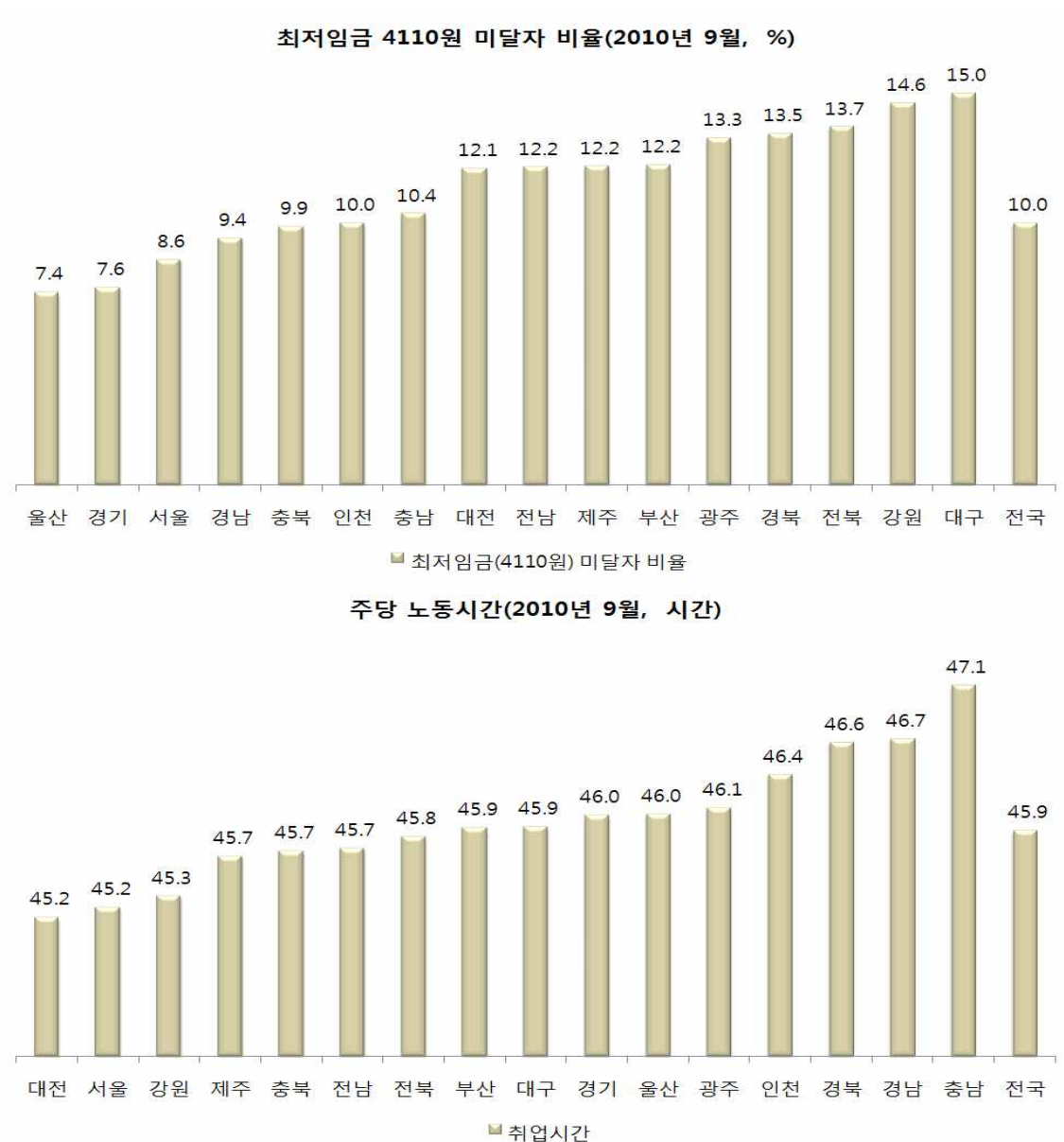
저임금계층(2010년 9월, 시간당임금 기준, %)



5. 노동시간

1) 평균 노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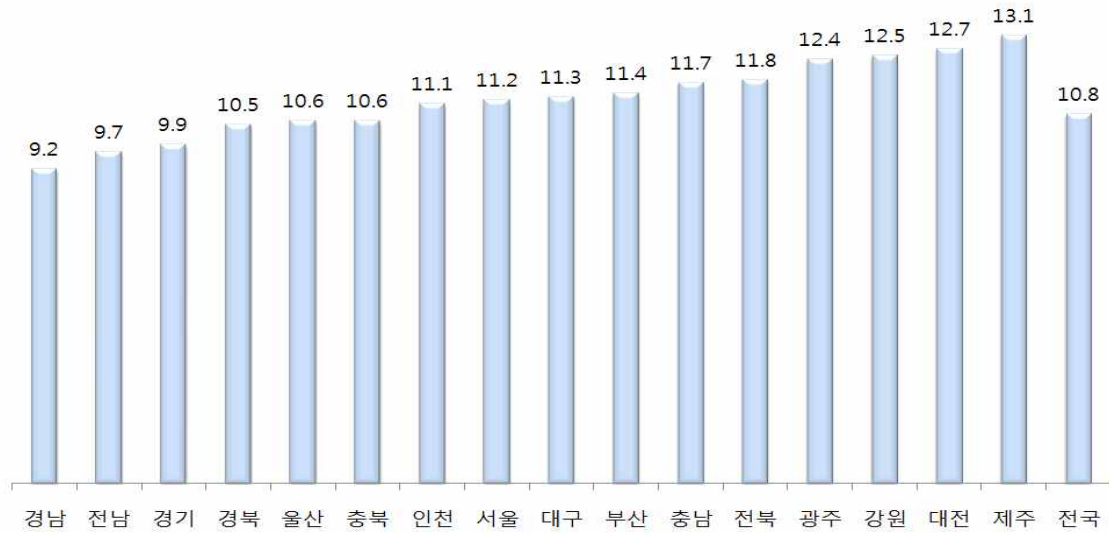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충남(47.1시간)이 가장 길고 대전(45.2시간)이 가장 짧다.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인천(46.4시간)이 가장 길고, 다음으로는 광주(46.1시간), 울산(46.0시간), 대구(45.9시간), 부산(45.9시간) 순이며, 서울(45.2시간)과 대전(45.2시간)이 가장 짧다.



2) 단시간 노동

단시간 노동(주 35시간 이하)은 제주(13.1%)가 가장 많고 경남(9.2%)이 가장 적다. 광역 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대전(12.7%)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광주(12.4%), 부산(11.4%), 대구(11.3%), 서울(11.2%), 인천(11.1%) 순이며, 울산(10.6%)이 가장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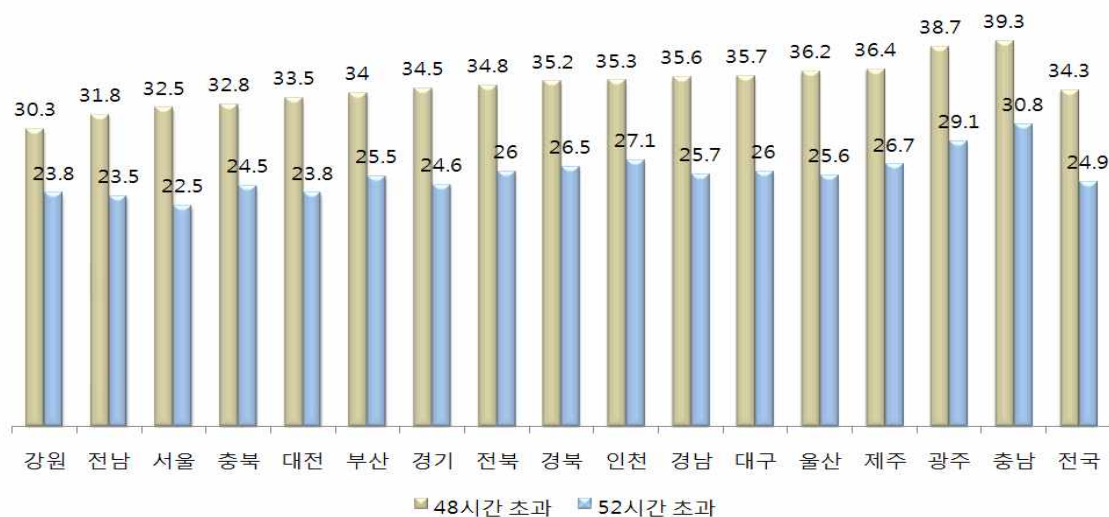
단시간 노동 비율(2010년 9월, %)



3) 장시간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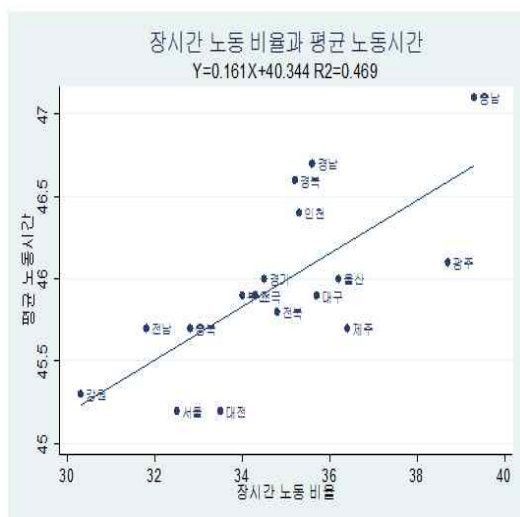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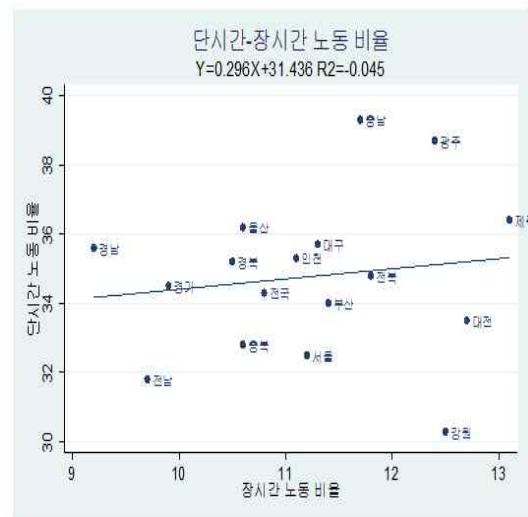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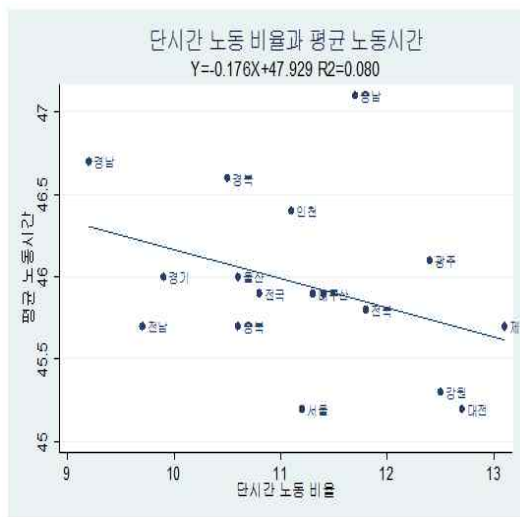
장시간 노동(주 48시간 초과)은 충남(39.3%)이 가장 많고 강원(30.3%)이 가장 적다.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광주(38.7%)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울산(36.2%), 대구(35.7%), 인천(35.3%), 경북(35.2%), 전북(34.8%), 경기(34.5%), 부산(34%), 대전(33.5%), 충북(32.8%), 서울(32.5%), 전남(31.8%), 강원(30.3%) 순이며, 전국(24.9%)이 가장 적다.

장시간 노동 비율(2010년 9월, %)



4) 단시간-장시간 노동비율과 평균 노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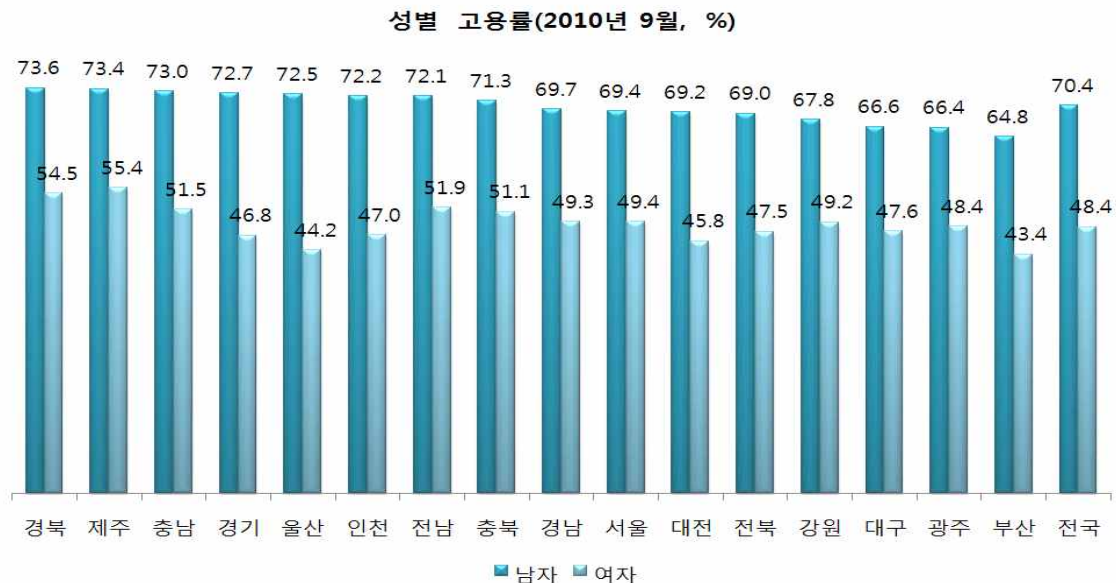
시도별 단시간 노동비율과 평균 노동시간은 상관계수가 -0.17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단시간 노동비율과 장시간 노동비율도 상관계수가 0.296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이에 비해 장시간 노동비율과 평균 노동시간은 상관계수가 0.161***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6. 고용평등

1) 성별 고용률 격차

성별 고용률 격차는 울산(28.3%)이 가장 크고, 광주(18.0%)와 제주(18.0%)가 가장 작다.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울산(28.3%), 인천(25.2%), 대전(23.5%), 부산(21.4%), 서울(20.0%), 대구(18.9%), 광주(18.0%) 순이다. 울산에서 성별 고용률 격차가 큰 것은 남자 고용률은 72.5%로 가장 높고 여자 고용률은 44.2%로 부산(43.4%) 다음으로 낮기 때문이다.



2) 성별 임금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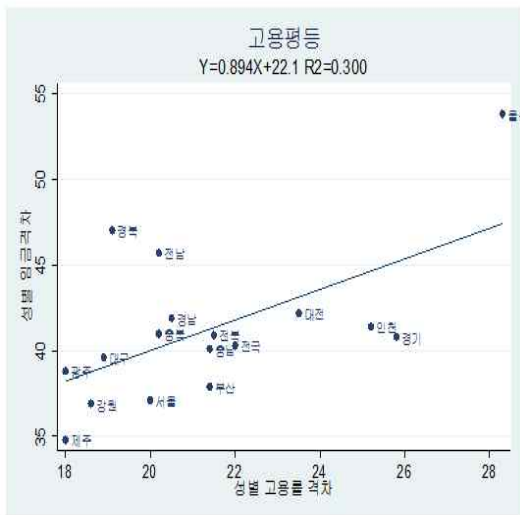
월평균임금 기준으로 성별 임금격차는 울산(53.8%)이 가장 크고 제주(34.8%)가 가장 작다. 광역시로 대상을 한정하면 울산(53.8%)이 가장 크고, 대전(42.2%), 인천(41.4%), 대구(39.6%), 광주(38.8%), 부산(37.9%) 순이며, 서울(37.1%)이 가장 작다. 울산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큰 것은 남자 임금은 297만원으로 가장 높지만 여자 임금은 137만원으로 평균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작은 것은 남자 임금은 265만원으로 울산 다음으로 높지만 여자 임금이 167만원으로 가장 높기 때문이다.

성별 월평균임금(2010년 9월, 만원)



3) 성별 고용률 격차와 임금격차

각 시도의 성별 고용률 격차와 임금격차는 상관계수가 0.894*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성별 고용률 격차가 큰 시도가 임금격차도 크다. 울산은 성별 고용률 격차와 임금격차 모두 가장 크고, 제주는 가장 작다.



7. 노조 조직률

통계청이 실시한 지역별 고용조사는 노조가입 여부를 묻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용정보원이 실시한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2009년)에서 노조가입률을 살펴보면, 울산(21.4%)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전남(14.7%), 광주(14.5%), 전북(13.3%) 등 호남권이 높다. 이에 비해 경기(8.3%), 인천(7.9%), 서울(6.8%) 등 수도권과 제주(6.4%)가 가장 낮다.



제4장 고용의 양과 질 지표 산출

1. 고용의 양과 질 지표 산출방식

고용의 양과 질 지표를 산출하려면 어느 지표를 사용할 것인가, 각 지표에 얼마만큼 가중치를 부여할 것인가부터 정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여러 지표 가운데 고용의 양 지표는 가장 대표성 있는 고용률을 사용하고, 고용의 질 지표는 고용안정(근속년수), 비정규직, 임금수준, 임금평등, 노동시간, 고용평등, 노사관계 7개 항목에 걸쳐 대표지표를 선정한 뒤 각 항목별로 동등한 가중치를 주고 산출했다.

<표4-1> 항목별 지표와 가중치

항목		지표	대표지표
1.고용의 양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실제 실업률 임금노동자비율, 공식고용(고용주+노동자)비율	고용률
2.고용의 질	1) 고용안정 - 근속년수	장기근속자(10년이상), 단기근속자 비율(1년미만), 직장유지율(장기-단기), 평균 근속년수	평균 근속년수
	2) 비정규직	기간제, 파트타임,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비율
	3) 임금수준	월평균임금(평균값, 중위값), 시간당임금(평균값, 중위값)	시간당임금(평균값)
	4) 임금평등	임금불평등(P9010), 저임금근로자비율(중위임금2/3미만),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임금불평등(p9010, 시간당 임금 기준)
	5) 노동시간	장시간노동비율, 단시간노동비율, 평균노동시간	평균 노동시간
	6) 고용평등	성별 고용률 격차, 성별 임금격차	성별 고용률 격차, 성별 임금격차
	7) 노사관계	노조 조직률	노조 조직률

서로 성격과 단위가 다른 지표를 종합하려면 표준화가 필요하다. 예컨대 똑같이 퍼센트로 계산한 자료라도 2010년 9월 16개 시도의 고용률은 최소 53.7% 최대 64.2%이고, 실업률은 최소 1.8% 최대 4.9%다. 이를 단순합산하면 고용률에는 높은 가중치를 주고 실업률에는 낮은 가중치를 주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측정지표 표준화는 UNDP와 ILO 등이 사용하는 다음 방법을 사용한다.

- 정(+)의 상관관계에 있는 지표 : 표준화한 $X = \frac{[\text{실제값} - \text{최소값}]}{[\text{최대값} - \text{최소값}]}$ ($0 \leq X \leq 1$)
- 부(-)의 상관관계에 있는 지표 : 표준화한 $X = \frac{[\text{최대값} - \text{실제값}]}{[\text{최대값} - \text{최소값}]}$ ($0 \leq X \leq 1$)

이 글은 특정 연도의 시도별 고용지표를 비교함과 동시에, 연도별 추이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지역별 고용조사는 2008년과 2009년, 2010년 3개년도 자료가 이용 가능하다. 따라서 표준화할 때 최대값과 최소값은 2008년 자료를 사용하고, 시간당 임금은 2008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각 시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차감한 실질임금 자료를 사용했다.

2. 고용의 양과 질 지표 산출 결과

<표4-2>와 <표4-3>, <표4-4>는 앞서 선정한 대표지표의 16개 시도별 실태를 요약 정리한 것이고, <표4-5>와 <표4-6>, <표4-7>은 이를 표준화한 결과다. 고용률과 근속년수, 임금수준, 노동시간, 노조 조직률은 고용의 질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고, 비정규직, 임금불평등, 성 불평등은 부(-)의 상관관계에 있는 지표로 간주하고 표준화 했다. 고용의 질(종합)지표는 근속년수, 비정규직, 임금수준, 임금불평등, 노동시간, 성 불평등, 노조 조직률 7개 지표에 동등한 가중치를 주고 산출했다.

<표4-2> 시도별 고용의 양과 질 대표지표 (2008년 8월)

	고용양	고용의 질							
	고용률	평균 근속 년수	비정 규직 비율	시간당 임금 수준	임금 불평등 (p9010)	주당 노동 시간	고용평등 (성 불평등)		노조 조직률
							고용률	임금	
	%	년	%	원	배	시간	%	%	%
서울	59.3	5.0	45.0	10,955	5.0	45.7	21.0	31.0	10.1
부산	54.2	5.5	45.6	9,299	4.9	46.3	19.9	35.6	10.8
대구	56.3	4.9	49.4	8,522	4.9	45.8	21.2	38.1	8.8
인천	59.5	4.5	49.6	8,926	4.3	47.2	23.8	35.1	11.4
광주	56.1	6.1	47.7	10,150	5.3	45.2	19.2	30.6	15.0
대전	58.4	5.7	48.4	9,920	5.2	45.4	23.5	36.0	13.3
울산	60.0	7.5	37.1	12,554	5.6	45.9	26.7	45.9	29.1
경기	60.9	5.1	41.2	10,426	4.8	46.2	24.1	37.5	11.5
강원	60.5	5.9	45.8	8,717	5.3	46.4	19.2	35.3	12.1
충북	61.0	5.9	38.8	9,702	4.7	46.1	21.4	37.8	15.4
충남	63.7	5.8	40.3	9,456	4.5	47.4	21.8	36.3	10.3
전북	59.4	6.1	39.6	9,070	4.9	45.8	19.6	35.8	16.9
전남	64.9	6.2	47.6	9,921	5.8	46.4	17.4	42.6	14.6
경북	65.0	6.3	37.7	9,254	5.0	46.2	19.6	42.9	14.1
경남	61.1	5.8	35.9	9,296	4.4	47.3	22.1	36.5	12.7
제주	67.2	5.4	56.4	8,846	5.4	45.3	14.4	37.1	8.5
전국	60.0	5.4	43.4	10,024	4.8	46.2	21.7	35.8	12.1
최대값	67.2	7.5	56.4	12,554	5.8	47.4	26.7	45.9	29.1
최소값	54.2	4.5	35.9	8,522	4.3	45.2	14.4	30.6	8.5

<표4-3> 시도별 고용의 양과 질 대표지표 (2009년 8월)

	고용양	고용의 질								
	고용률	평균 근속 년수	비정 규직 비율	시간당 임금		임금 불평등	주당 노동 시간	고용평등 (성 불평등)		노조 조직률
				명목 임금	실질 임금			고용률	임금	
%	년	%	원	원	배	시간	%	%	%	
서울	58.0	5.2	38.4	11,203	10,883	4.9	45.6	20.7	32.5	6.8
부산	53.8	5.5	45.4	9,381	9,107	4.5	45.8	20.7	33.6	9.9
대구	58.1	4.9	48.7	8,667	8,467	4.6	45.5	20.3	32.8	8.6
인천	59.5	4.3	48.7	9,105	8,863	4.3	46.1	22.8	33.3	7.9
광주	57.3	5.7	46.1	9,759	9,516	4.8	45.0	20.4	34.7	14.5
대전	56.8	5.5	48.1	9,937	9,716	5.0	45.3	23.6	33.2	11.1
울산	58.5	7.0	40.8	11,211	10,965	4.8	45.5	29.6	42.6	21.4
경기	59.5	5.0	40.3	10,256	9,966	4.4	46.5	25.5	33.4	8.3
강원	60.0	5.6	48.6	9,013	8,845	4.8	45.2	19.6	33.1	8.9
충북	61.4	5.8	40.5	9,607	9,386	4.8	45.7	18.8	36.1	11.1
충남	63.4	5.4	39.0	9,240	8,995	4.5	47.3	20.8	35.5	10.7
전북	59.1	5.8	44.8	8,995	8,740	4.8	45.7	19.3	35.9	13.3
전남	65.0	6.1	48.7	10,055	9,778	5.5	45.0	18.8	43.0	14.7
경북	63.5	5.8	43.2	9,227	9,014	4.7	45.2	19.5	39.8	9.4
경남	60.0	5.8	35.8	9,280	9,009	4.5	46.4	20.0	34.6	10.8
제주	67.0	5.1	56.4	8,623	8,468	5.1	45.2	15.1	33.8	6.4
전국	59.3	5.3	42.2	9,997	9,723	4.8	45.9	21.9	34.2	9.3
최대값	67.0	7.0	56.4	11,211	10,965	5.5	47.3	29.6	43.0	21.4
최소값	53.8	4.3	35.8	8,623	8,467	4.3	45.0	15.1	32.5	6.4

<표4-4> 시도별 고용의 양과 질 대표지표 (2010년 9월)

	고용양	고용의 질								
	고용률	평균 근속 년수	비정 규직 비율	시간당임금		임금 불평등	주당 노동 시간	고용평등 (성 불평등)		노조 조직률
				명목 임금	실질 임금			고용률	임금	
%	년	%	원	원	배	시간	%	%	%	
서울	59.1	5.2	38.6	11,665	11,019	5.38	45.2	20.0	32.5	6.8
부산	53.7	5.5	40.2	9,651	9,088	4.50	45.9	21.4	32.0	9.9
대구	56.8	5.1	46.4	8,851	8,407	4.63	45.9	18.9	32.1	8.6
인천	59.4	4.5	46.8	9,403	8,870	4.21	46.4	25.2	33.0	7.9
광주	57.1	5.5	44.8	9,420	8,925	4.86	46.1	18.0	31.4	14.5
대전	57.3	5.3	45.9	10,434	9,894	5.25	45.2	23.5	35.7	11.1
울산	58.6	7.1	41.3	12,113	11,483	5.34	46.0	28.3	46.0	21.4
경기	59.6	5.1	39.8	11,024	10,418	4.50	46.0	25.8	33.0	8.3
강원	58.3	5.9	43.6	9,433	8,985	4.50	45.3	18.6	31.8	8.9
충북	61.0	6.0	38.7	10,042	9,525	4.68	45.7	20.2	34.9	11.1
충남	62.1	5.5	37.3	9,542	9,019	4.26	47.1	21.4	34.9	10.7
전북	57.9	6.4	42.2	9,603	9,035	4.76	45.8	21.5	35.6	13.3
전남	61.7	7.0	39.6	10,619	9,999	5.25	45.7	20.2	40.3	14.7
경북	63.8	6.3	38.0	9,583	9,073	4.50	46.6	19.1	41.6	9.4
경남	59.3	6.0	32.6	9,821	9,224	4.16	46.7	20.5	35.2	10.8
제주	64.2	5.8	52.9	9,256	8,790	4.50	45.7	18.0	29.9	6.4
전국	59.1	5.4	40.4	10,504	9,925	4.78	45.9	22.0	33.9	9.3
최대값	64.2	7.1	52.9	12,113	11,483	5.38	47.1	28.3	46.0	21.4
최소값	53.7	4.5	32.6	8,851	8,407	4.16	45.2	18.0	29.9	6.4

<표4-5> 시도별 고용의 양과 질 대표지표 표준화 결과 (2008년 8월)

	고용양	고용의 질							
	고용률	평균 근속 년수	비정 규직 비율	시간당 임금 수준	임금 불평등 (p9010)	주당 노동 시간	고용평 등(성 불평등)	노조 조직률	종합
서울	0.39	0.17	0.55	0.60	0.53	0.77	0.72	0.08	0.49
부산	0.00	0.34	0.53	0.19	0.57	0.50	0.61	0.11	0.41
대구	0.16	0.14	0.34	0.00	0.60	0.75	0.48	0.02	0.33
인천	0.41	0.00	0.33	0.10	1.00	0.12	0.48	0.14	0.31
광주	0.15	0.52	0.42	0.40	0.32	1.00	0.80	0.32	0.54
대전	0.32	0.39	0.39	0.35	0.36	0.92	0.45	0.23	0.44
울산	0.45	1.00	0.94	1.00	0.11	0.69	0.00	1.00	0.68
경기	0.52	0.19	0.74	0.47	0.67	0.57	0.38	0.15	0.45
강원	0.48	0.45	0.52	0.05	0.34	0.49	0.65	0.18	0.38
충북	0.52	0.47	0.86	0.29	0.73	0.60	0.48	0.34	0.54
충남	0.73	0.43	0.79	0.23	0.84	0.00	0.51	0.09	0.41
전북	0.40	0.54	0.82	0.14	0.58	0.77	0.62	0.41	0.55
전남	0.82	0.55	0.43	0.35	0.00	0.46	0.49	0.30	0.37
경북	0.83	0.59	0.91	0.18	0.51	0.58	0.39	0.27	0.49
경남	0.53	0.44	1.00	0.19	0.88	0.06	0.50	0.20	0.47
제주	1.00	0.29	0.00	0.08	0.26	1.00	0.79	0.00	0.34
전국평균	0.45	0.29	0.63	0.37	0.64	0.58	0.53	0.17	0.46
단순평균	0.48	0.41	0.60	0.29	0.52	0.58	0.52	0.24	0.45
표준편차	0.27	0.23	0.28	0.25	0.28	0.31	0.19	0.23	0.10
상관관계	1.00	0.17	0.02	-0.07	-0.17	-0.16	-0.06	-0.04	-0.14
최대값	1.00	1.00	1.00	1.00	1.00	1.00	0.80	1.00	0.68
최소값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31

<표4-6> 시도별 고용의 양과 질 대표지표 표준화 결과 (2009년 8월)

	고용양	고용의 질							
	고용률	평균 근속 년수	비정 규직 비율	시간당 임금 수준	임금 불평등 (p9010)	주당 노동 시간	고용평 등(성 불평등)	노조 조직률	종합
서울	0.30	0.24	0.88	0.59	0.57	0.83	0.68	-0.08	0.53
부산	-0.03	0.32	0.54	0.15	0.84	0.77	0.65	0.07	0.48
대구	0.30	0.15	0.38	-0.01	0.77	0.88	0.69	0.01	0.41
인천	0.41	-0.05	0.38	0.08	0.99	0.61	0.57	-0.03	0.36
광주	0.24	0.39	0.50	0.25	0.62	1.10	0.62	0.29	0.54
대전	0.20	0.34	0.40	0.30	0.52	0.97	0.54	0.13	0.46
울산	0.33	0.82	0.76	0.61	0.64	0.90	-0.01	0.63	0.62
경기	0.41	0.15	0.79	0.36	0.91	0.42	0.46	-0.01	0.44
강원	0.44	0.36	0.38	0.08	0.64	1.04	0.71	0.02	0.46
충북	0.55	0.43	0.78	0.21	0.66	0.80	0.64	0.13	0.52
충남	0.71	0.29	0.85	0.12	0.84	0.07	0.58	0.11	0.41
전북	0.37	0.42	0.57	0.05	0.65	0.80	0.63	0.23	0.48
전남	0.83	0.53	0.37	0.31	0.16	1.13	0.41	0.30	0.46
경북	0.72	0.45	0.65	0.12	0.72	1.01	0.49	0.05	0.50
경남	0.45	0.43	1.01	0.12	0.84	0.47	0.64	0.11	0.52
제주	0.98	0.19	0.00	-0.01	0.42	1.00	0.87	-0.10	0.34
전국평균	0.39	0.27	0.69	0.30	0.64	0.70	0.58	0.04	0.46
단순평균	0.45	0.34	0.58	0.21	0.68	0.80	0.57	0.12	0.47
표준편차	0.26	0.19	0.26	0.19	0.20	0.28	0.19	0.18	0.07
상관관계	1.00	0.02	-0.24	-0.26	-0.41	0.00	0.12	-0.14	-0.39
최대값	0.98	0.82	1.01	0.61	0.99	1.13	0.87	0.63	0.62
최소값	-0.03	-0.05	-0.00	-0.01	0.16	0.07	-0.01	-0.10	0.34

<표4-7> 시도별 고용의 양과 질 대표지표 표준화 결과 (2010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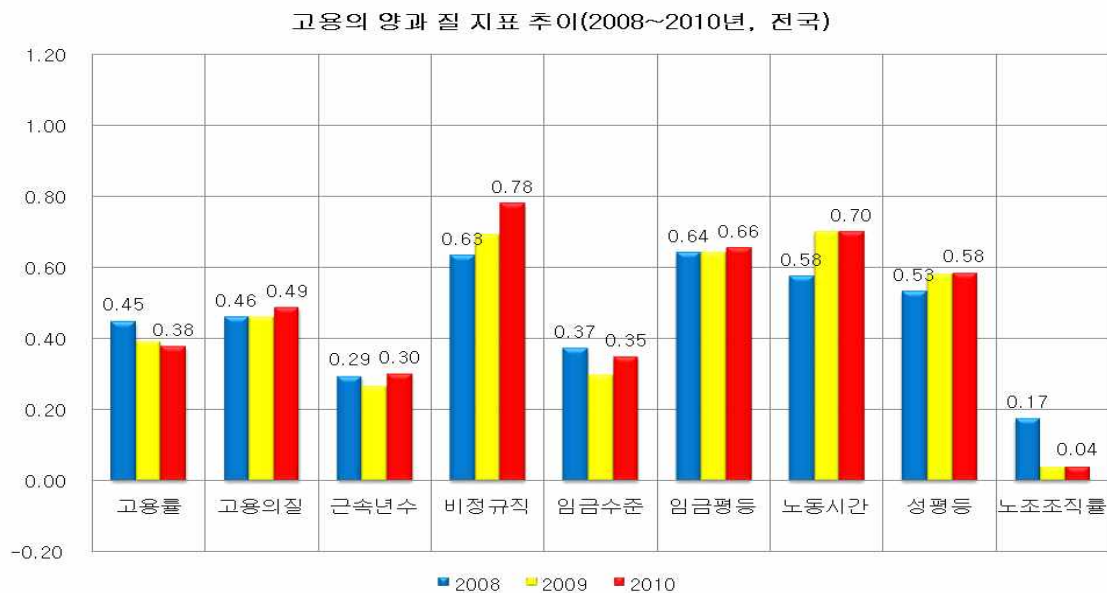
	고용양	고용의 질							
	고용률	평균 근속 년수	비정 규직 비율	시간당 임금 수준	임금 불평등 (p9010)	주당 노동 시간	고용평 등(성 불평등)	노조 조직률	종합
서울	0.38	0.24	0.87	0.62	0.25	1.02	0.71	-0.08	0.52
부산	-0.04	0.33	0.79	0.14	0.84	0.70	0.67	0.07	0.51
대구	0.20	0.20	0.49	-0.03	0.76	0.70	0.77	0.01	0.41
인천	0.40	0.01	0.47	0.09	1.04	0.47	0.48	-0.03	0.36
광주	0.22	0.33	0.57	0.10	0.60	0.61	0.83	0.29	0.48
대전	0.24	0.27	0.51	0.34	0.34	1.02	0.46	0.13	0.44
울산	0.34	0.86	0.74	0.73	0.28	0.66	-0.07	0.63	0.55
경기	0.42	0.20	0.81	0.47	0.84	0.66	0.46	-0.01	0.49
강원	0.32	0.46	0.62	0.11	0.84	0.98	0.79	0.02	0.55
충북	0.52	0.50	0.86	0.25	0.72	0.79	0.63	0.13	0.55
충남	0.61	0.33	0.93	0.12	1.00	0.15	0.58	0.11	0.46
전북	0.29	0.63	0.69	0.13	0.67	0.75	0.55	0.23	0.52
전남	0.58	0.82	0.82	0.37	0.34	0.79	0.45	0.30	0.56
경북	0.74	0.59	0.90	0.14	0.84	0.38	0.45	0.05	0.48
경남	0.39	0.50	1.16	0.17	1.07	0.34	0.60	0.11	0.57
제주	0.77	0.43	0.17	0.07	0.84	0.79	0.88	-0.10	0.44
전국평균	0.38	0.30	0.78	0.35	0.66	0.70	0.58	0.04	0.49
단순평균	0.40	0.42	0.71	0.24	0.71	0.68	0.58	0.12	0.49
표준편차	0.21	0.23	0.24	0.21	0.27	0.24	0.22	0.18	0.06
상관관계	1.00	0.27	0.02	-0.01	0.16	-0.30	-0.05	-0.17	-0.02
최대값	0.77	0.86	1.16	0.73	1.07	1.02	0.88	0.63	0.57
최소값	-0.04	0.01	0.17	-0.03	0.25	0.15	-0.07	-0.10	0.36

제5장 16개 시·도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비교

1. 기술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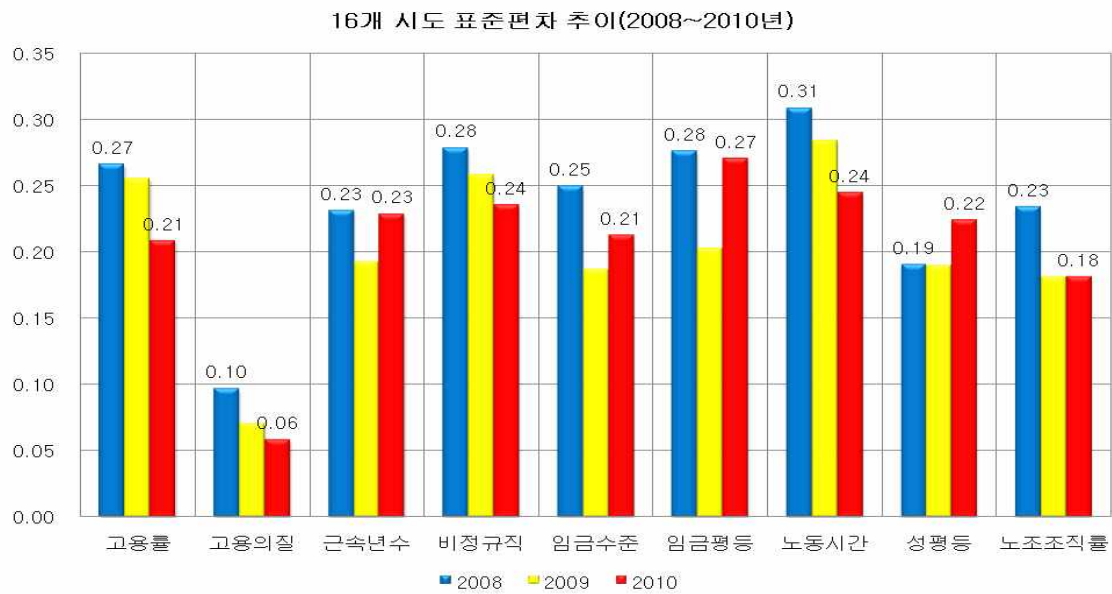
1) 평균

고용의 양(고용률) 지표 평균은 2008년 0.45, 2009년 0.39, 2010년 0.38로 하락했고, 고용의 질 지표는 각각 0.46, 0.46, 0.49로 조금 개선되었다. 이러한 고용의 질 개선은 비정규직 비율 하락과 노동시간 단축, 성 불평등 축소에서 비롯되었다. 노조 조직률과 실질임금은 하락했다.



2)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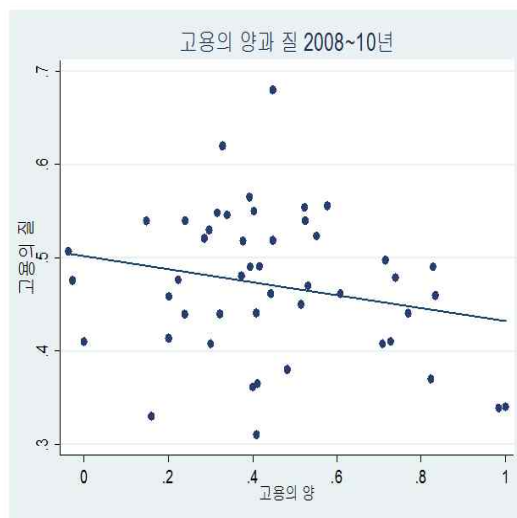
16개 시도의 고용률 표준편차는 2008년 0.27, 2009년 0.26, 2010년 0.21로 축소되고, 고용의 질은 각각 0.10, 0.07, 0.06로 축소되었다. 이는 그만큼 시도 간 격차가 줄고 평균값으로 수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용의 질의 표준편차가 줄어든 것은 주로 노동시간, 노조 조직률, 비정규직 비율, 임금수준에서 비롯되고 있다.



2. 상관분석

1) 단순 상관관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고용의 양과 질 지표를 상관분석 하면 상관계수가 -0.218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0.141, 2009년 -0.392, 2010년 -0.018로 모두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5-1>에서 고용의 질 관련 세부지표를 살펴보다도 대부분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거나 0에 근접하고 있다.



<표5-1> 고용의 양과 질 상관관계

연도	고용률	고용 질	근속	비정규 직	임금 수준	임금 평등	노동 시간	성평등	노사 관계
2008년	1.00	-0.14	0.17	0.02	-0.07	-0.17	-0.16	-0.06	-0.04
2009년	1.00	-0.39	0.02	-0.24	-0.26	-0.41	0.00	0.12	-0.14
2010년	1.00	-0.02	0.27	0.02	-0.01	0.16	-0.30	-0.05	-0.17

2) 횡단면 시계열 분석

<표5-2>는 종속변수를 고용의 질로 하고, 설명변수를 고용의 양으로 하여 횡단면 시계열 분석(pooled-time analysis) 한 결과다. 모든 모형에서 계수 값 부호는 (-)고, 크기는 -0.070 내지 -0.344다. 모형 자체가 유의미하지 않은 (모형1)과 (모형2)는 계수 값이 유의미하지 않지만, (모형3)과 (모형4), (모형5)는 계수 값이 모두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다. 16개 광역시도에서 고용의 양과 질은 (-) 상관관계를 보이며, 고용의 양과 질은 괴리된 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5-2> 고용의 양과 질 횡단면 시계열 분석결과(2008~10년, 16개 시도, 관측치 48개)

종속변수: 고용의 질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합동 OLS		패널 GLS (동분산 가정)		패널 GLS (이분산가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고용의 양	-0.070	0.136	-0.070	0.122	-0.074	0.021	-0.344	0.002	-0.155	0.013
상수	0.502	0.000	0.502	0.000	0.505	0.000	0.623	0.000	0.540	0.000
F값	2.300	0.136					11.590	0.002		
Wald χ^2			2.400	0.122	5.320	0.021			6.110	0.014
모형설명력	0.027						0.048		0.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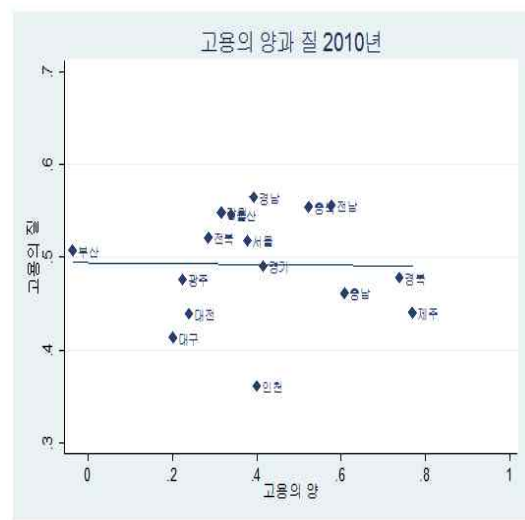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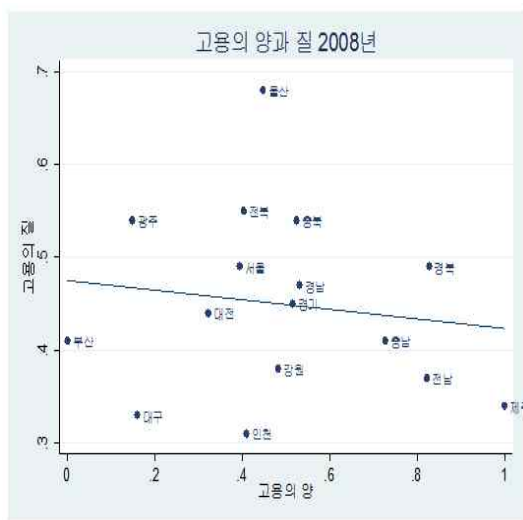
3. 시도별 지표와 순위

<표5-3>은 연도별 고용의 양과 질(종합) 지표를 요약한 것이고, <표4>는 시도별 순위를 매긴 것이다. 2008년 고용의 양 지표(고용률)는 제주, 경북, 전남, 충남, 충북, 경기, 인천, 경남, 서울, 울산, 강원, 전북,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순으로, 제주와 경북이 가장 높고 광주와 부산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고용의 질 지표는 울산, 전북, 광주, 충북, 경북, 서울, 경남, 경기, 대전, 충남, 부산, 강원, 전남, 제주, 대구, 인천 순으로, 울산과 전북이 가장 높고 대구와 인천이 가장 낮다.

2010년 고용의 양 지표는 제주, 경북, 충남, 전남, 경남, 충북, 경기, 강원, 울산, 인천, 전

북,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순으로, 제주와 경북이 가장 높고 대구와 부산이 가장 낮다. 하지만 고용의 질 지표는 경남, 전남, 충북, 강원, 울산, 전북, 서울, 부산, 경기, 경북, 광주, 충남, 제주, 대전, 대구, 인천 순으로, 경남과 전남이 가장 높고 대구와 인천이 가장 낮다.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고용의 양 지표는 광주(0.08)와 대구(0.04) 두 곳만 개선되고, 다른 시도는 모두 악화되었다. 고용의 질 지표는 울산(-0.13)과 광주(-0.06), 전북(-0.03), 경북(-0.01) 네 곳이 악화되고, 다른 지역은 모두 개선되었는데, 특히 전남(0.19)과 강원(0.17), 경남(0.10), 부산(0.10)이 크게 개선되었다. 고용의 양과 질 지표는 시도 간에 분산이 줄어들고 평균값으로 수렴하고 있다.



<표5-3> 연도별 시도별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비교

	2008년		2009년		2010년		2008-09년		2009-10년		2008-10년	
	양	질	양	질	양	질	양	질	양	질	양	질
서울	0.39	0.49	0.30	0.53	0.38	0.52	-0.10	0.04	0.08	-0.01	-0.02	0.03
부산	0.00	0.41	-0.03	0.48	-0.04	0.51	-0.03	0.07	-0.01	0.03	-0.04	0.10
대구	0.16	0.33	0.30	0.41	0.20	0.41	0.14	0.08	-0.10	0.01	0.04	0.08
인천	0.41	0.31	0.41	0.36	0.40	0.36	0.00	0.06	-0.01	0.00	-0.01	0.05
광주	0.15	0.54	0.24	0.54	0.22	0.48	0.09	0.00	-0.02	-0.06	0.08	-0.06
대전	0.32	0.44	0.20	0.46	0.24	0.44	-0.12	0.02	0.04	-0.02	-0.08	0.00
울산	0.45	0.68	0.33	0.62	0.34	0.55	-0.12	-0.06	0.01	-0.07	-0.11	-0.13
경기	0.52	0.45	0.41	0.44	0.42	0.49	-0.11	-0.01	0.01	0.05	-0.10	0.04
강원	0.48	0.38	0.44	0.46	0.32	0.55	-0.04	0.08	-0.13	0.09	-0.17	0.17
충북	0.52	0.54	0.55	0.52	0.52	0.55	0.03	-0.01	-0.03	0.03	0.00	0.02
충남	0.73	0.41	0.71	0.41	0.61	0.46	-0.02	-0.01	-0.10	0.05	-0.12	0.05
전북	0.40	0.55	0.37	0.48	0.29	0.52	-0.03	-0.07	-0.09	0.04	-0.12	-0.03
전남	0.82	0.37	0.83	0.46	0.58	0.56	0.01	0.09	-0.26	0.10	-0.25	0.19
경북	0.83	0.49	0.72	0.50	0.74	0.48	-0.11	0.01	0.02	-0.02	-0.09	-0.01
경남	0.53	0.47	0.45	0.52	0.39	0.57	-0.08	0.05	-0.06	0.05	-0.14	0.10
제주	1.00	0.34	0.98	0.34	0.77	0.44	-0.02	-0.01	-0.22	0.10	-0.23	0.10
전국	0.45	0.46	0.39	0.46	0.38	0.49	-0.06	0.00	-0.01	0.03	-0.07	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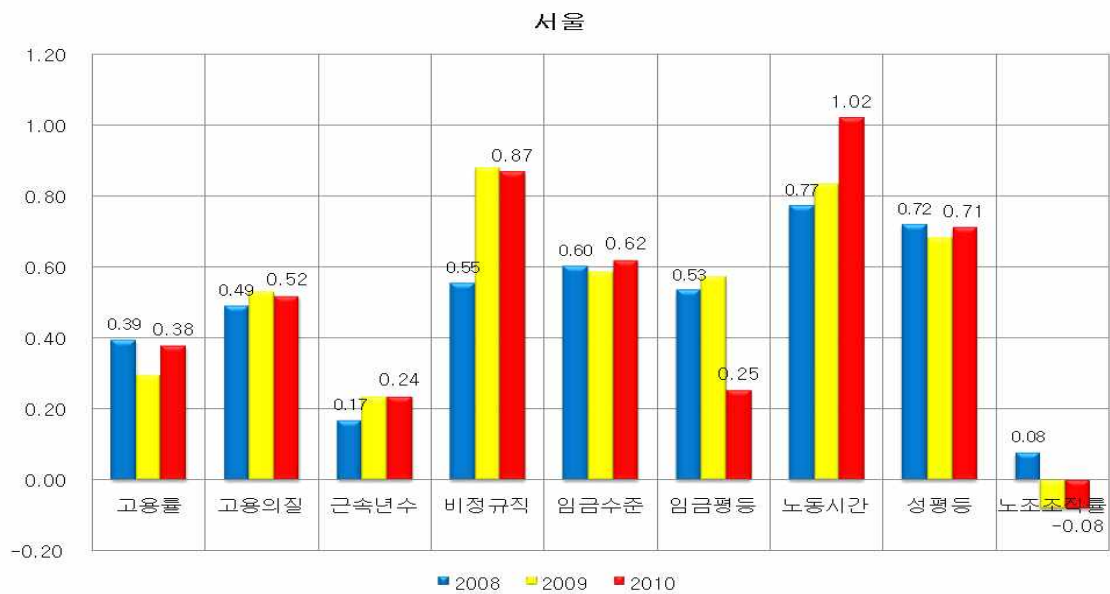
<표5-4> 연도별 시도별 고용의 양과 질 지표 순위

	2008년		2009년		2010년		2008-09년		2009-10년		2008-10년	
	양	질	양	질	양	질	양	질	양	질	양	질
서울	12	6	13	3	9	7	-1	3	4	-4	3	-1
부산	16	11	16	8	16	8	0	3	0	0	0	3
대구	14	15	12	13	15	15	2	2	-3	-2	-1	0
인천	10	16	8	15	7	16	2	1	1	-1	3	0
광주	15	3	14	2	14	11	1	1	0	-9	1	-8
대전	13	9	15	11	13	14	-2	-2	2	-3	0	-5
울산	9	1	11	1	10	5	-2	0	1	-4	-1	-4
경기	7	8	9	12	6	9	-2	-4	3	3	1	-1
강원	8	12	7	9	11	4	1	3	-4	5	-3	8
충북	6	4	5	4	5	3	1	0	0	1	1	1
충남	4	10	4	14	3	12	0	-4	1	2	1	-2
전북	11	2	10	7	12	6	1	-5	-2	1	-1	-4
전남	3	13	2	10	4	2	1	3	-2	8	-1	11
경북	2	5	3	6	2	10	-1	-1	1	-4	0	-5
경남	5	7	6	5	8	1	-1	2	-2	4	-3	6
제주	1	14	1	16	1	13	0	-2	0	3	0	1

4. 16개 시·도별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비교

1)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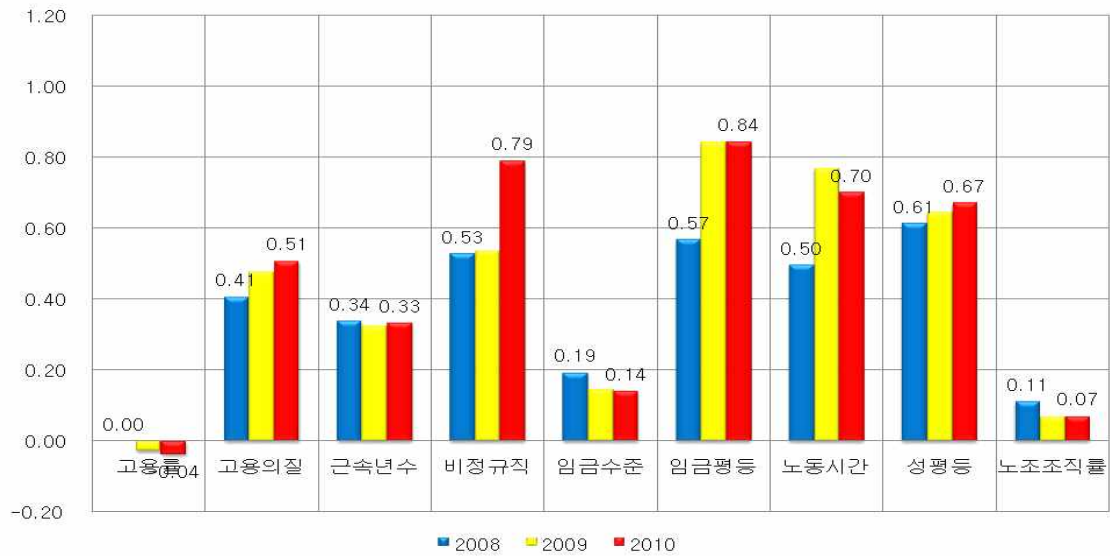
서울은 고용률이 2008년 0.39(12위)에서 2010년 0.38(9위)로 조금 하락하고, 고용의 질은 0.49(6위)에서 0.52(7위)로 조금 개선되었다. 고용의 질 개선은 비정규직 비율 하락과 노동시간 단축, 근속년수 확대에서 비롯되었다. 노조 조직률은 하락하고 임금불평등은 심화되었다.



2) 부산

부산은 고용률이 0.00(16위)에서 -0.04(16위)로 더 악화되고, 고용의 질은 0.41(11위)에서 0.51(8위)로 조금 개선되었다. 고용의 양은 최하위고, 고용의 질은 중위권이다. 고용의 질 개선은 비정규직 비율 하락과 노동시간 단축, 임금불평등 축소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노조 조직률과 임금수준은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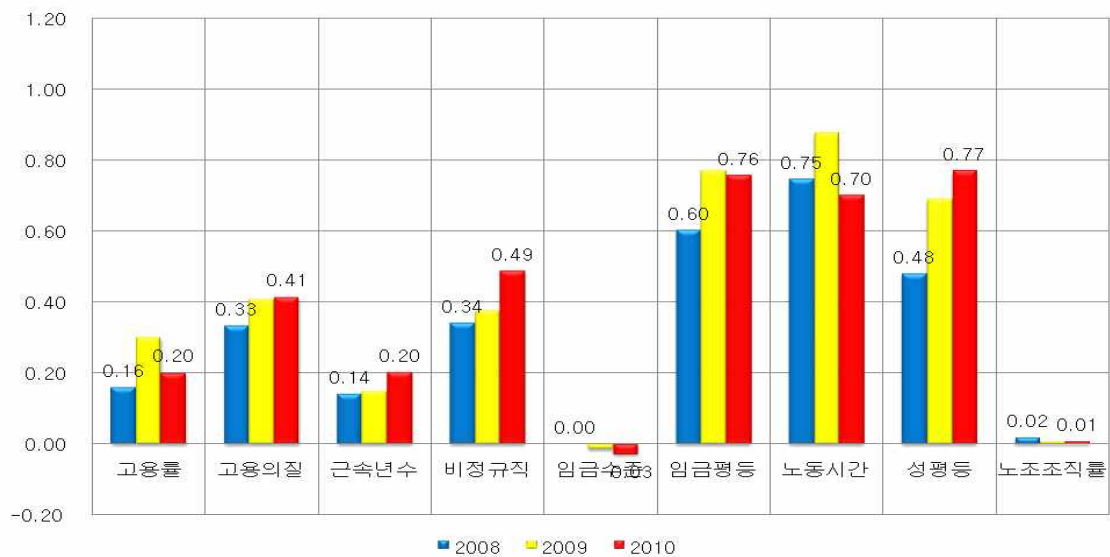
부산



3) 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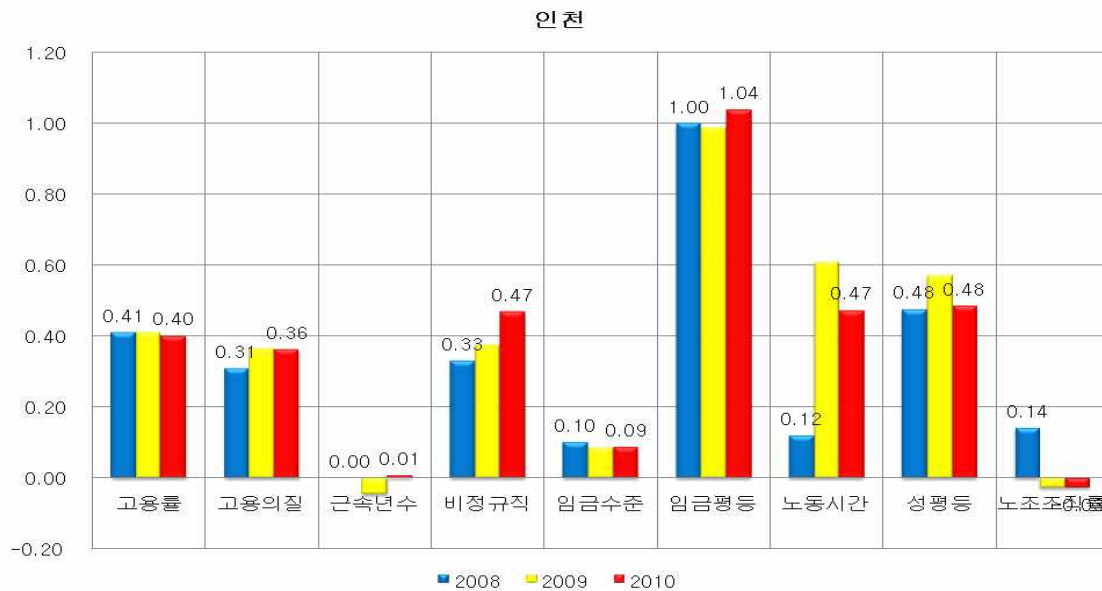
대구는 고용률은 0.16(14위)에서 0.20(15위)로, 고용의 질은 0.33(15위)에서 0.41(15위)로 개선되었다. 하지만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끝에서 두 번째다. 고용의 질 개선은 비정규직 비율 하락과 노동시간 단축, 근속년수 연장, 임금불평등과 성불평등 축소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낮은 노조 조직률과 임금수준은 더욱 하락했다.

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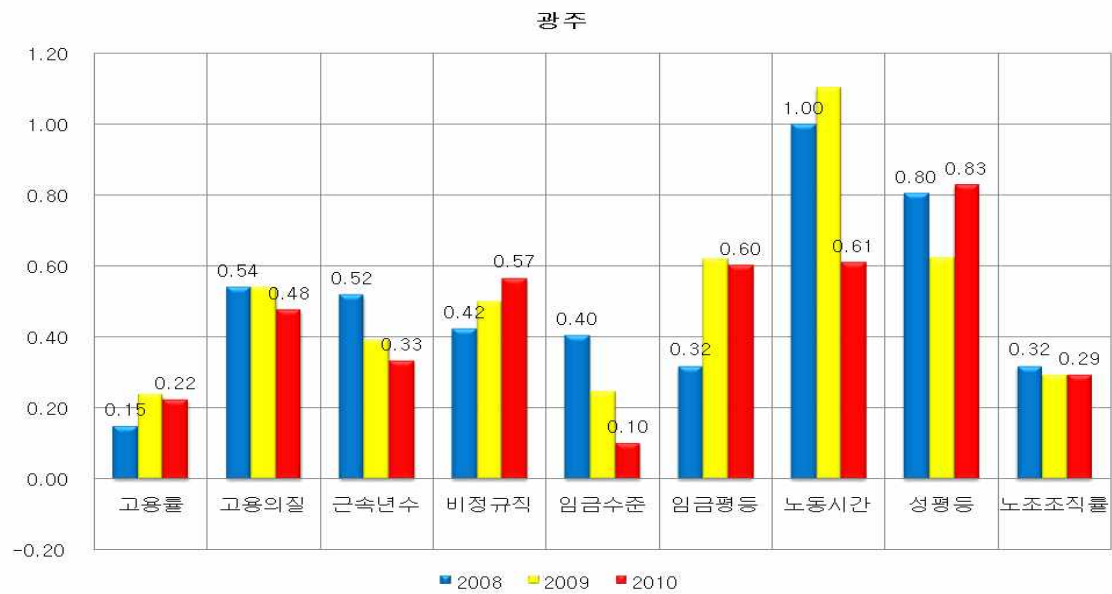
4) 인천

인천은 고용률이 0.41(10위)에서 0.40(7위)로 조금 하락하고, 고용의 질은 0.31(16위)에서 0.36(16위)으로 조금 개선되었다. 고용의 양은 중간 수준이지만, 고용의 질은 썩쁘다. 고용의 질 지표가 조금이나마 개선된 것은 비정규직 비율 하락과 노동시간 단축에 기인하며, 근속년수와 임금수준, 노조 조직률은 최하위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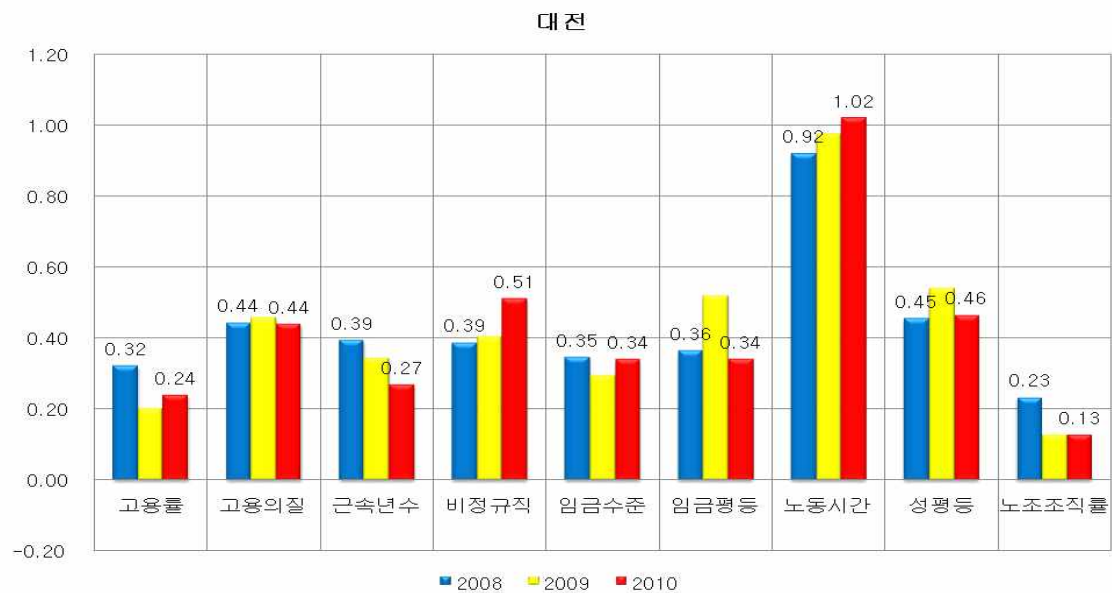
5) 광주

광주는 고용률은 0.15(15위)에서 0.22(14위)로 개선되고, 고용의 질은 0.54(3위)에서 0.48(11위)로 악화되었다. 고용의 양과 질 모두 하위권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하락하고 임금 불평등이 개선되었음에도 이처럼 고용의 질이 악화된 것은, 근속년수가 줄고 임금수준이 하락하고 노동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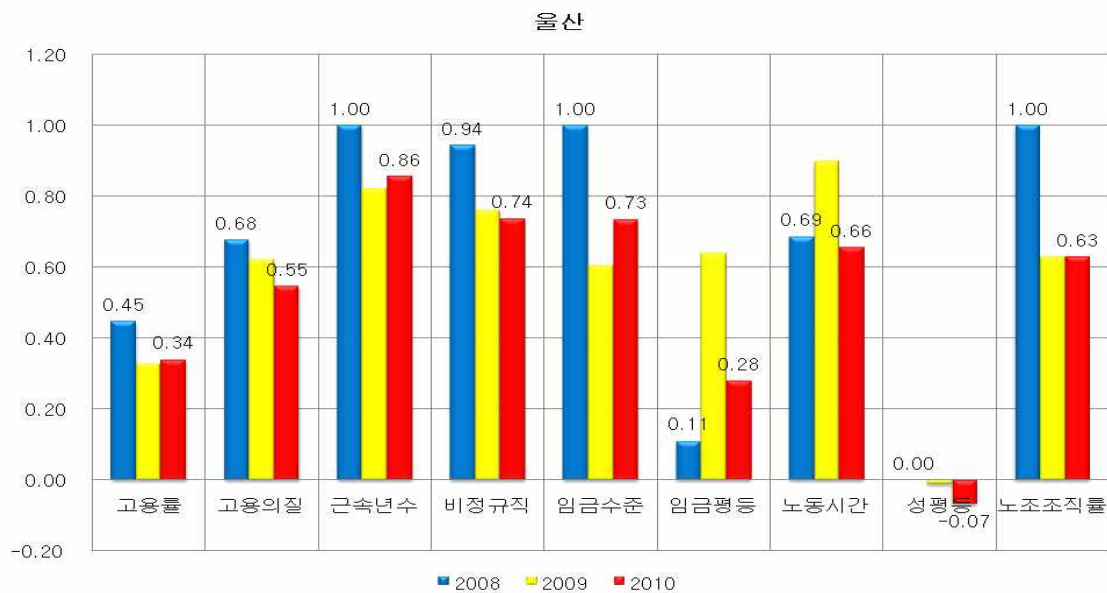
6) 대전

대전은 고용률은 0.32(13위)에서 0.24(13위)로 악화되고, 고용의 질은 0.44(9위)에서 0.44(14위)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최하위권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하락하고 노동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고용의 질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근속년수가 줄고 노조 조직률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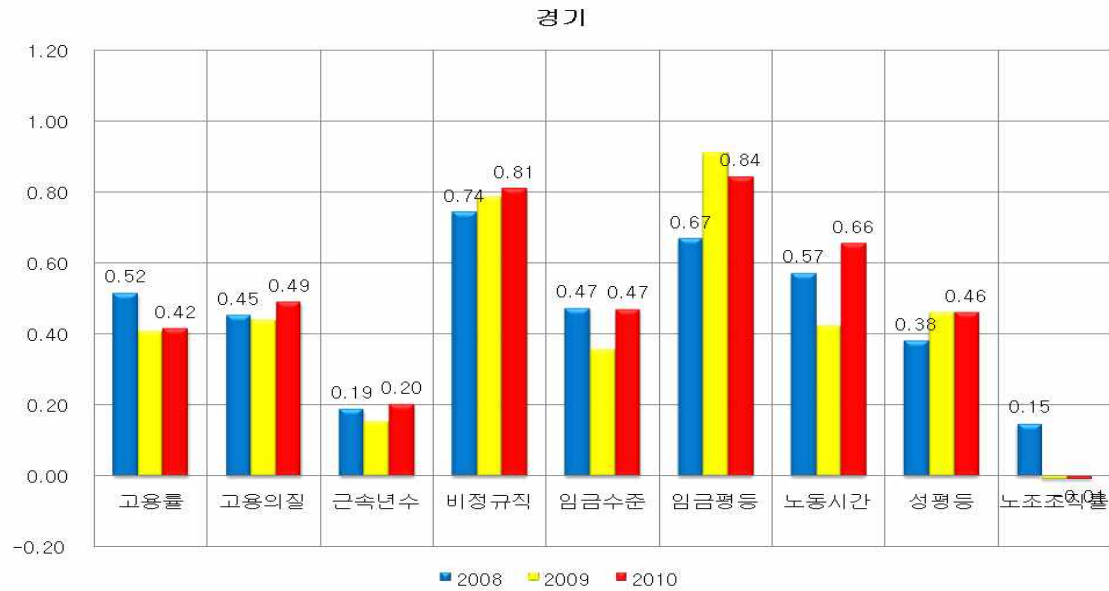
7) 울산

울산은 고용률이 0.45(9위)에서 0.34(10위)로, 고용의 질은 0.68(1위)에서 0.55(5위)로 하락했다. 임금수준과 근속년수, 노조 조직률 모두 여전히 1위여도 고용의 질 지표가 하락한 것은, 실질임금과 근속년수, 노조 조직률, 비정규직 비율 모두 악화되었기 때문인데, 임금불평등과 성불평등은 전국에서 가장 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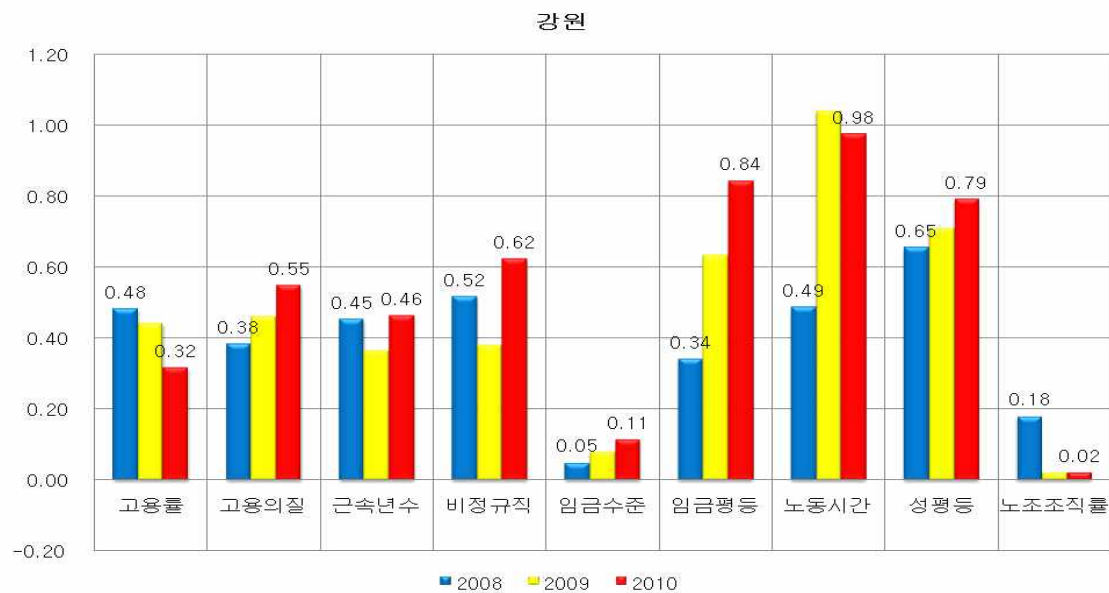
8) 경기

경기는 고용률은 0.52(7위)에서 0.42(6위)로 하락하고, 고용의 질은 0.45(8위)에서 0.49(9위)로 조금 개선되었다.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중위권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하락하고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임금불평등이 축소되었지만, 근속년수와 임금수준은 제자리걸음이고 노조 조직률은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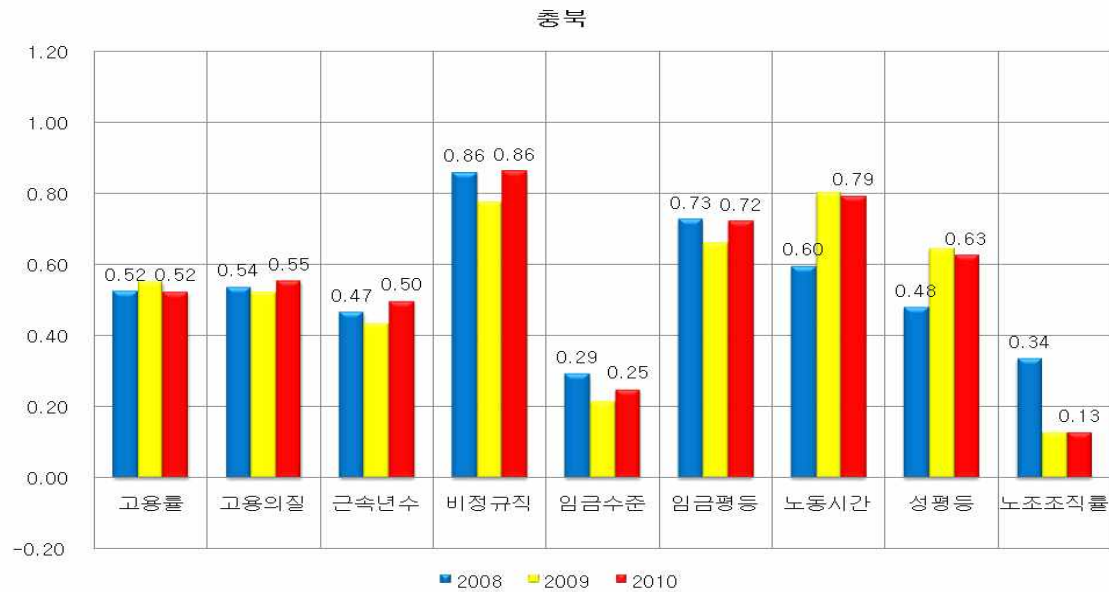
9) 강원

강원은 고용률은 0.48(8위)에서 0.32(11위)로 하락하고, 고용의 질은 0.38(12위)에서 0.55(4위)로 개선되었다. 고용의 질이 개선된 것은 임금불평등이 축소되고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비정규직 비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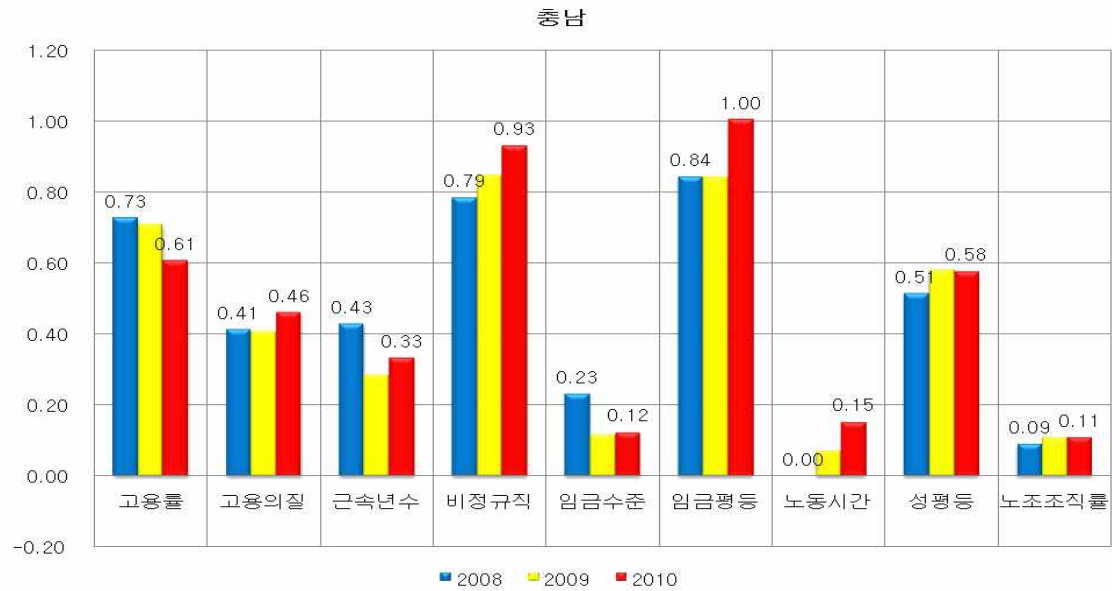
10) 충북

충북은 고용률은 0.52(6위)에서 0.52(5위), 고용의 질은 0.54(4위)에서 0.55(3위)로 거의 변함이 없다.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상위권이다.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성불평등이 축소된데 비해, 임금수준과 노조조직률은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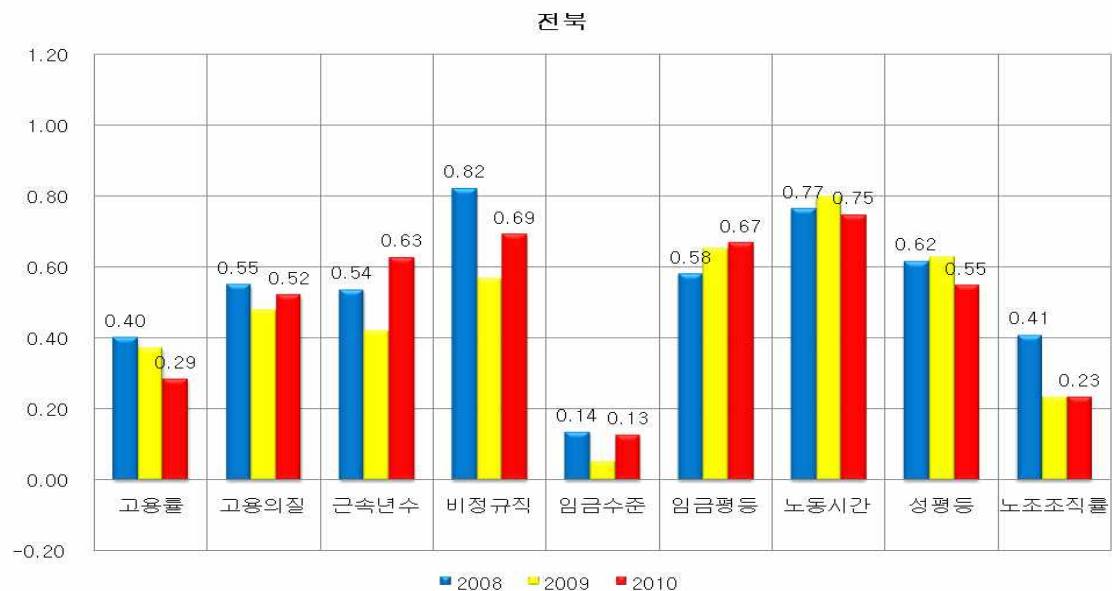
11) 충남

충남은 고용률은 0.73(4위)에서 0.61(3위)로 하락하고, 고용의 질은 0.41(10위)에서 0.46(12위)으로 개선되었다. 고용률은 상위권이지만 고용의 질은 하위권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 임금불평등이 축소되었지만, 임금수준은 하락하고 근속년수는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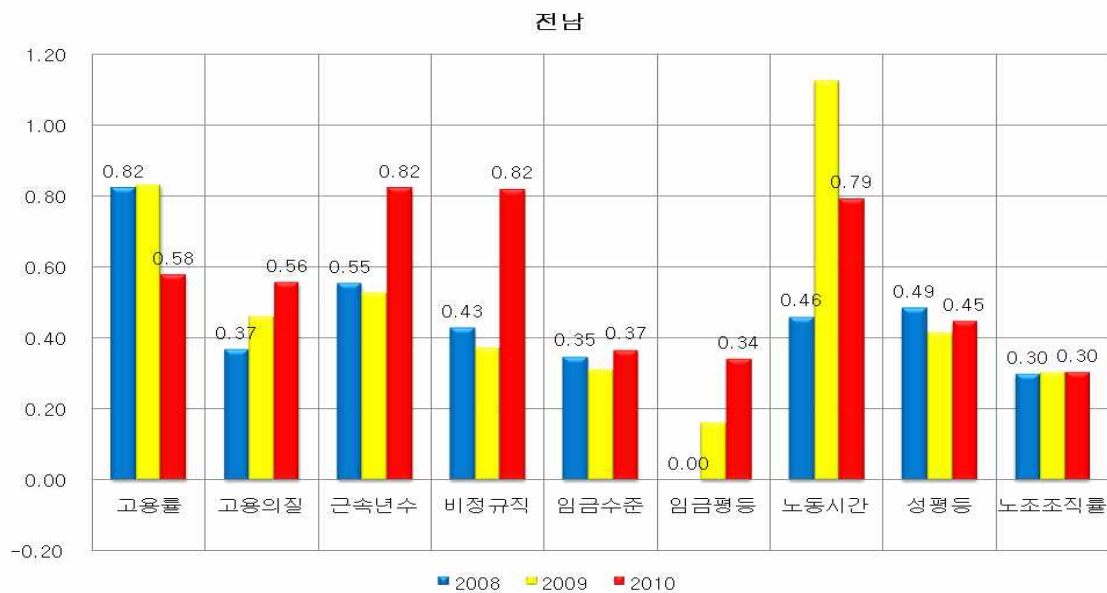
12) 전북

전북은 고용률은 0.40(11위)에서 0.29(12위)로, 고용의 질은 0.55(2위)에서 0.52(6위)로 하락했다. 고용의 양은 하위권이지만 고용의 질은 상위권이다. 근속년수가 길어지고 임금불평등이 완화되었음에도 고용의 질이 하락한 것은,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고 노조 조직률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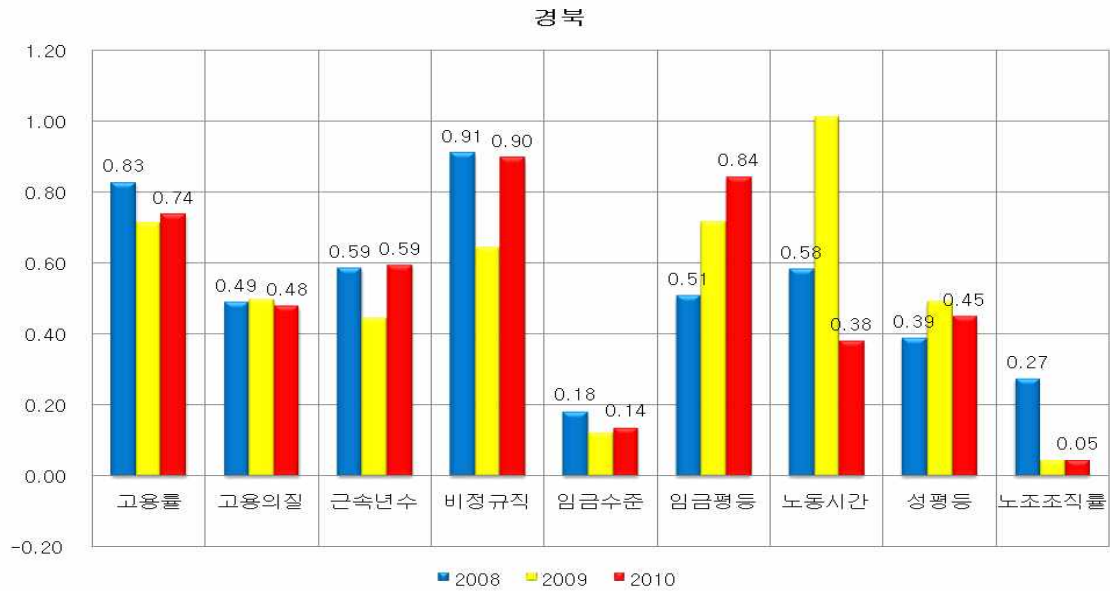
13) 전남

전남은 고용률은 0.82(3위)에서 0.58(4위)로 크게 하락했지만, 고용의 질은 0.37(13위)에서 0.56(3위)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상위권에 속한다. 이처럼 고용의 질이 크게 개선된 것은 근속년수가 길어지고 비정규직 비율이 하락하고 임금불평등이 완화되고 노동시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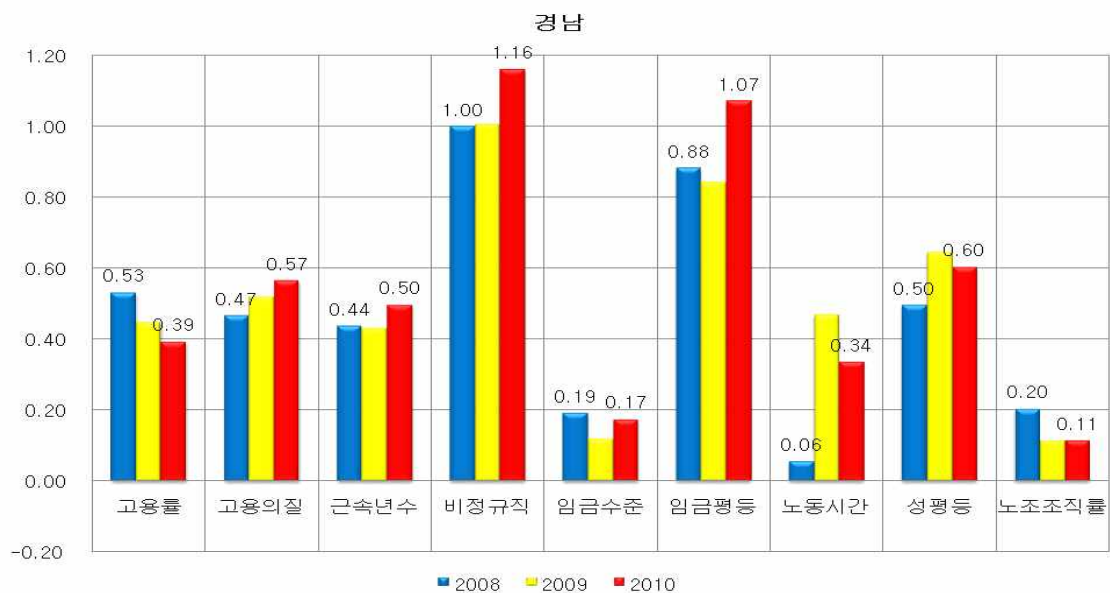
14) 경북

경북은 고용률은 0.83(2위)에서 0.74(2위)로 하락하고, 고용의 질은 0.49(5위)에서 0.48(10위)로 거의 같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상위권이었지만 2010년에는 고용의 양은 상위권, 고용의 질은 하위권이다. 이는 임금불평등은 개선되었지만, 임금수준과 노조 조직률이 하락하고 노동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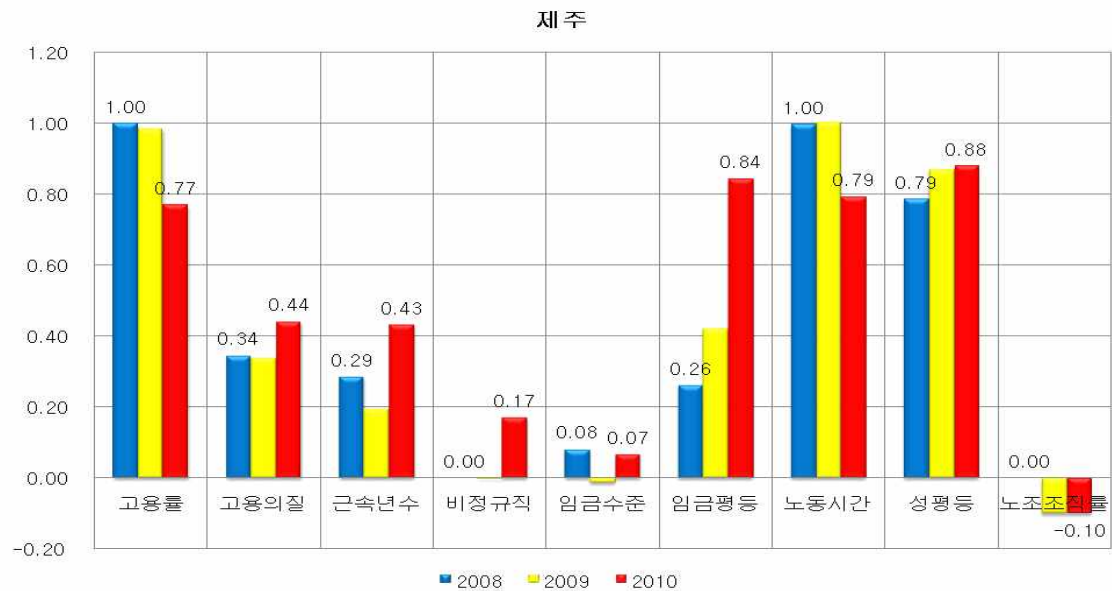
15) 경남

경남은 고용률은 0.53(5위)에서 0.39(8위)로 크게 하락했지만, 고용의 질은 0.47(7위)에서 0.57(1위)로 크게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의 양은 중위권이지만 고용의 질은 최상위권이다. 이처럼 고용의 질이 크게 개선된 것은 근속년수가 늘고 비정규직 비율이 하락하고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임금불평등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질임금과 노조 조직률은 하락했다.



16) 제주

제주는 고용률은 1.00(1위)에서 0.77(1위)로 하락하고, 고용의 질은 0.34(14위)에서 0.44(13위)로 개선되었다. 고용의 양은 최상위권인데, 고용의 질은 최하위권이다. 고용의 질이 개선된 것은 근속년수가 늘고 비정규직 비율이 줄고 임금불평등과 성불평등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금수준은 최하위권에서 개선되지 않고, 노조 조직률은 하락했다.



제6장 맺는 말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종합하면서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회원국은 대부분 고용의 양과 질이 밀접한 정(+)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고용의 양과 질이 괴리된 이상치(outlier)다(김유선 2010). 이 글에서는 16개 광역시도 고용의 양과 질 지표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상관계수는 -0.218 이고, 연도별로는 2008년 -0.141 , 2009년 -0.392 , 2010년 -0.018 로 모두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종속변수를 고용의 질, 설명변수를 고용의 양으로 하여 횡단면 시계열 분석하더라도 계수 값은 -0.070 내지 -0.344 로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이는 고용의 양(고용률)을 개선한다고 해서 고용의 질이 개선되지 않으며,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 나가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고용의 양(고용률) 지표는 0.45 에서 0.38 로 하락하고, 고용의 질 지표는 0.46 에서 0.49 로 조금 개선되었다. 이러한 고용의 질 개선은 비정규직 비율 하락과 노동시간 단축, 성 불평등 축소에서 비롯되었으며, 실질임금과 노조 조직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16개 광역시도의 고용률은 표준편차가 0.27 에서 0.21 로 축소되고, 고용의 질은 0.10 에서 0.06 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16개 광역시도의 고용의 양과 질 격차가 줄어들고 평균값으로 수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고용률은 제주, 경북, 충남이 1~3위로 가장 높지만, 고용의 질은 제주 13위, 경북 10위, 충남 12위로 최하위권이다. 고용률은 경기, 인천, 경남, 서울, 울산이 6~10위로 엇비슷하지만, 고용의 질은 경남(1위), 울산(5위), 서울(7위), 경기(9위), 인천(16위) 순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다. 경남과 울산은 고용률이 8위와 10위로 중위권이지만, 고용의 질은 1위와 5위다. 인천은 고용률은 7위로 중간이지만, 고용의 질은 16위로 가장 낮다. 부산은 고용률이 16위로 가장 낮지만 고용의 질은 중위권(8위)이다. 이에 비해 대전은 고용률 13위, 고용의 질 14위고, 대구는 15위로 최하위권이다. 이는 각 시도별로 지역 실정에 걸 맞는 맞춤형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갈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 과제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통계청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 고용조사 자료에 주로 의존했다. 이 글에서 분석한 16개 광역시도 고용의 양과 질 비교연구는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각 시도 일자리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삼을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분석대상을 16개 광역시도로 한정했다. 하지만 같은 광역시도 구(區)마다

실태가 다르고, 같은 광역도도 시(市)와 군(郡)마다 실태가 다르다. 따라서 지역 노동시장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지역 실정에 걸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이 일반에게 제공하는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에서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는 구(區) 단위 추가 분석이 불가능하지만, 9개 광역도는 시(市)와 군(郡) 단위 추가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군구 단위 추가 분석은 너무 방대한 작업이 되어 추후 과제로 넘겼다.

〈참고문헌〉

- 김유선(2010), 『KLSI 고용지표 : OECD 국가 비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을식(2009a), “경기도 고용동향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경기개발연구원.
- 김을식(2009b), “지역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징”, 경기개발연구원.
- 김을식·박경진(2010), “지역노동시장정책의 성과 분석 : 고용종합지수 개발 및 적용”, 경기개발연구원.
- 김을식·박경진·조무상(2010), “지역 고용통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김주섭·전명숙·임상훈·오민홍·전윤구(2009), 『지역인적자원개발과 지역고용 거버넌스』, 한국노동연구원.
- 김진덕·함창모·남기성(2009), “충북지역 노동시장구조 분석”, 충북개발연구원.
- 오민홍·남기성·홍현균·황기돈(2008), “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와 차별성 연구”, 고용정보원.
- 오민홍·홍현균(2009), “지역 노동시장 종합지수 개발 및 활용”, 고용정보원.
- 이권형(2009), “인천 고용구조의 특성과 정책방향”, 인천개발연구원.
- 이권형(2010), “인천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정책 방향”, 인천개발연구원.
- 정인수(2006), 『지역노동시장연구(II): 부천 제조업 노동시장 및 지역협업체 분석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정인수(2008), 『지역노동시장연구(IV): 모범적 지역협업체 안착을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정인수·윤윤규(2007), 『지역노동시장연구(III): 부산권 노동시장 및 지역협업체 분석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정인수·전병유·임상훈(2003), 『지역노동시장연구: 실증분석과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부록> 16개 시·도 주요 고용지표

<부표1> 지역별 주요 고용지표(2010년 9월)

	수(천명)					비율(%)		
	15세 이상 인구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서울	8,395	5,185	4,960	225	3,210	61.8	59.1	4.3
부산	2,901	1,615	1,558	57	1,286	55.7	53.7	3.6
대구	2,053	1,213	1,166	47	840	59.1	56.8	3.8
인천	2,230	1,392	1,324	68	838	62.4	59.4	4.9
광주	1,169	687	668	19	482	58.8	57.1	2.8
대전	1,234	725	707	18	509	58.7	57.3	2.5
울산	916	555	536	19	361	60.6	58.6	3.4
경기	9,661	5,974	5,756	218	3,687	61.8	59.6	3.6
강원	1,193	713	696	17	480	59.7	58.3	2.4
충북	1,239	771	756	15	468	62.2	61.0	2.0
충남	1,618	1,038	1,005	33	580	64.2	62.1	3.2
전북	1,428	844	826	18	584	59.2	57.9	2.2
전남	1,425	895	879	16	530	62.8	61.7	1.8
경북	2,182	1,427	1,392	35	755	65.4	63.8	2.4
경남	2,602	1,591	1,543	48	1,011	61.1	59.3	3.0
제주	438	286	281	5	152	65.3	64.2	1.8
전국	40,684	24,911	24,053	858	15,773	61.2	59.1	3.4

<부표2> 실제 실업자(률) 추계 (2010년 9월, 단위: 천명, %)

	실업자	18시간 미만 취업자	취업준 비	60세 미만 쉬었음	실제 실업자	실제 취업자	공식 실업률	실제 실업률	실제 고용률
서울	225	198	150	161	734	4762	4.3	13.4	56.7
부산	57	49	48	110	264	1509	3.6	14.9	52.0
대구	47	40	32	52	171	1126	3.8	13.2	54.8
인천	68	45	30	39	182	1279	4.9	12.5	57.4
광주	19	32	24	31	106	636	2.8	14.3	54.4
대전	18	29	23	23	93	678	2.5	12.1	54.9
울산	19	22	11	22	74	514	3.4	12.6	56.1
경기	218	214	96	239	767	5542	3.6	12.2	57.4
강원	17	26	11	31	85	670	2.4	11.3	56.2
충북	15	24	16	26	81	732	2.0	10.0	59.1
충남	33	32	10	22	97	973	3.2	9.1	60.1
전북	18	26	24	28	96	800	2.2	10.7	56.0
전남	16	20	10	26	72	859	1.8	7.7	60.3
경북	35	32	19	42	128	1360	2.4	8.6	62.3
경남	48	40	21	75	184	1503	3.0	10.9	57.8

제주	5	14	5	10	34	267	1.8	11.3	61.0
전국	858	843	530	937	3168	23210	3.4	12.0	57.0

<부표3> 지역별 산업별 취업자(2010년 9월, 단위: 천명)

	취업 자	농림 어업	제조 업	건설 업	생산 자서 비스	유통 서비 스업	개인 서비 스업	사회 서비 스업	공공 행정	교육 서비 스업	보건 사회 복지
서울	4,960	9	563	377	955	1,395	824	815	177	390	244
부산	1,558	19	289	118	173	440	238	267	54	116	97
대구	1,166	29	244	79	121	282	188	215	42	111	62
인천	1,324	29	305	106	175	304	192	199	46	94	59
광주	668	14	95	70	82	158	98	146	28	63	54
대전	707	10	83	65	116	176	112	137	37	58	43
울산	536	13	172	40	60	91	73	82	17	37	28
경기	5,756	228	1,125	405	865	1,343	801	946	186	452	301
강원	696	124	44	54	65	120	126	144	49	53	41
충북	756	126	150	49	71	122	96	133	32	60	41
충남	1,005	246	186	55	83	159	123	143	35	58	50
전북	826	208	103	57	62	144	100	143	40	56	47
전남	879	307	91	63	56	131	93	131	45	46	40
경북	1,392	381	257	75	88	203	168	205	55	76	73
경남	1,543	273	372	94	118	253	187	231	57	95	80
제주	281	57	9	22	29	60	48	54	13	23	18
전국	24,053	2,073	4,088	1,729	3,119	5,381	3,467	3,991	913	1,788	1,278

<부표4> 지역별 산업별 취업자(2010년 9월, 단위: %)

	취업 자	농림 어업	제조 업	건설 업	생산 자서 비스	유통 서비 스업	개인 서비 스업	사회 서비 스업	공공 행정	교육 서비 스업	보건 사회 복지
서울	100.0	0.2	11.4	7.6	19.3	28.1	16.6	16.4	3.6	7.9	4.9
부산	100.0	1.2	18.6	7.6	11.1	28.3	15.3	17.1	3.5	7.5	6.2
대구	100.0	2.5	20.9	6.8	10.4	24.2	16.1	18.4	3.6	9.5	5.3
인천	100.0	2.2	23.1	8.0	13.2	23.0	14.5	15.0	3.5	7.1	4.5
광주	100.0	2.1	14.2	10.5	12.3	23.7	14.7	21.9	4.2	9.4	8.1
대전	100.0	1.4	11.7	9.2	16.4	24.9	15.8	19.4	5.2	8.2	6.1
울산	100.0	2.4	32.0	7.4	11.2	16.9	13.6	15.2	3.2	6.9	5.2
경기	100.0	4.0	19.5	7.0	15.0	23.3	13.9	16.4	3.2	7.9	5.2
강원	100.0	17.9	6.3	7.8	9.4	17.3	18.2	20.7	7.1	7.6	5.9
충북	100.0	16.7	19.9	6.5	9.4	16.2	12.7	17.6	4.2	8.0	5.4
충남	100.0	24.5	18.5	5.5	8.3	15.8	12.2	14.2	3.5	5.8	5.0
전북	100.0	25.2	12.5	6.9	7.5	17.5	12.1	17.3	4.8	6.8	5.7
전남	100.0	34.9	10.3	7.2	6.4	14.9	10.6	14.9	5.1	5.2	4.5
경북	100.0	27.4	18.4	5.4	6.3	14.6	12.1	14.7	3.9	5.5	5.2
경남	100.0	17.7	24.1	6.1	7.6	16.4	12.1	15.0	3.7	6.2	5.2
제주	100.0	20.2	3.2	7.8	10.3	21.3	17.0	19.1	4.6	8.2	6.4
전국	100.0	8.6	17.0	7.2	13.0	22.4	14.4	16.6	3.8	7.4	5.3

<부표5> 지역별 직업별 취업자(2010년 9월, 단위: 천명)

	취업자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직	판매직	농림 어업 숙련직	기능직	장기기 제조작 조립원	단순 노무직
서울	4,960	71	1,204	1,028	522	736	15	469	308	606
부산	1,558	14	255	264	157	234	16	178	222	216
대구	1,166	15	207	178	130	163	28	119	170	156
인천	1,324	16	230	237	130	170	28	139	204	170
광주	668	8	138	103	67	97	13	77	89	76
대전	707	8	153	125	70	101	11	79	73	88
울산	536	6	82	86	50	59	13	73	107	60
경기	5,756	57	1,283	1,070	503	733	219	499	699	693
강원	696	5	96	90	90	82	117	55	59	101
충북	756	6	117	110	70	75	122	61	103	91
충남	1,005	8	122	117	88	91	236	76	147	122
전북	826	9	108	95	75	87	201	65	98	90
전남	879	9	94	89	69	78	298	81	75	86
경북	1,392	12	158	148	124	118	367	102	198	164
경남	1,543	19	207	214	127	154	264	160	221	176
제주	281	2	45	37	33	31	53	21	24	36
전국	24,053	265	4,499	3,991	2,305	3,009	2,001	2,254	2,797	2,931

<부표6> 지역별 직업별 취업자(2010년 9월, 단위: %)

	취업자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직	판매직	농림 어업 숙련직	기능직	장기기 제조작 조립원	단순 노무직
서울	100.0	1.4	24.3	20.7	10.5	14.8	0.3	9.5	6.2	12.2
부산	100.0	0.9	16.4	17.0	10.1	15.0	1.0	11.4	14.3	13.9
대구	100.0	1.3	17.8	15.3	11.1	14.0	2.4	10.2	14.6	13.4
인천	100.0	1.2	17.4	17.9	9.8	12.8	2.1	10.5	15.4	12.8
광주	100.0	1.2	20.7	15.4	10.0	14.5	1.9	11.5	13.3	11.4
대전	100.0	1.1	21.6	17.7	9.9	14.3	1.6	11.2	10.3	12.4
울산	100.0	1.1	15.3	16.0	9.3	11.0	2.4	13.6	20.0	11.2
경기	100.0	1.0	22.3	18.6	8.7	12.7	3.8	8.7	12.1	12.0
강원	100.0	0.7	13.8	12.9	12.9	11.8	16.8	7.9	8.5	14.5
충북	100.0	0.8	15.5	14.6	9.3	9.9	16.2	8.1	13.6	12.1
충남	100.0	0.8	12.1	11.6	8.7	9.0	23.4	7.5	14.6	12.1
전북	100.0	1.1	13.0	11.5	9.1	10.5	24.3	7.9	11.8	10.9
전남	100.0	1.0	10.7	10.1	7.8	8.9	33.9	9.2	8.5	9.8
경북	100.0	0.9	11.4	10.6	8.9	8.5	26.4	7.3	14.2	11.8
경남	100.0	1.2	13.4	13.9	8.2	10.0	17.1	10.4	14.3	11.4
제주	100.0	0.7	16.0	13.1	11.7	11.0	18.8	7.4	8.5	12.8
전국	100.0	1.1	18.7	16.6	9.6	12.5	8.3	9.4	11.6	12.2

<부표7> 지역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2010년 9월, 단위: 천명)

	취업자	임금 노동자	상용	임시	일용	비임금 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 가족 종사자	공식고 용(상용+ 고용주)
서울	4,960	3,732	2,580	801	351	1,228	393	655	180	2,973
부산	1,558	1,152	786	246	120	406	101	235	70	887
대구	1,166	830	491	245	94	336	84	193	59	575
인천	1,324	1,014	634	299	81	310	88	178	44	722
광주	668	502	320	134	48	166	45	97	24	365
대전	707	542	354	130	58	165	50	95	20	404
울산	536	425	290	109	26	111	30	66	15	320
경기	5,756	4,261	2,908	1,023	330	1,495	377	863	255	3,285
강원	696	415	274	93	48	281	43	171	67	317
충북	756	481	338	96	47	275	45	158	72	383
충남	1,005	573	407	113	53	432	55	256	121	462
전북	826	457	292	110	55	369	44	220	105	336
전남	879	422	286	92	44	457	41	276	140	327
경북	1,392	761	522	160	79	631	68	365	198	590
경남	1,543	969	718	165	86	574	88	334	152	806
제주	281	174	100	48	26	107	17	65	25	117
전국	24,053	16,710	11,300	3,864	1,546	7,343	1,569	4,227	1,547	12,869

<부표8> 지역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2010년 9월, 단위: %)

	취업자	임금 노동자	상용	임시	일용	비임금 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무급 가족 종사자	공식고 용(상용+ 고용주)
서울	100.0	75.2	52.0	16.1	7.1	24.8	7.9	13.2	3.6	59.9
부산	100.0	73.9	50.4	15.8	7.7	26.1	6.5	15.1	4.5	56.9
대구	100.0	71.2	42.1	21.0	8.1	28.8	7.2	16.6	5.1	49.3
인천	100.0	76.6	47.9	22.6	6.1	23.4	6.6	13.4	3.3	54.5
광주	100.0	75.1	47.9	20.1	7.2	24.9	6.7	14.5	3.6	54.6
대전	100.0	76.7	50.1	18.4	8.2	23.3	7.1	13.4	2.8	57.1
울산	100.0	79.3	54.1	20.3	4.9	20.7	5.6	12.3	2.8	59.7
경기	100.0	74.0	50.5	17.8	5.7	26.0	6.5	15.0	4.4	57.1
강원	100.0	59.6	39.4	13.4	6.9	40.4	6.2	24.6	9.6	45.5
충북	100.0	63.6	44.7	12.7	6.2	36.4	6.0	20.9	9.5	50.7
충남	100.0	57.0	40.5	11.2	5.3	43.0	5.5	25.5	12.0	46.0
전북	100.0	55.3	35.4	13.3	6.7	44.7	5.3	26.6	12.7	40.7
전남	100.0	48.0	32.5	10.5	5.0	52.0	4.7	31.4	15.9	37.2
경북	100.0	54.7	37.5	11.5	5.7	45.3	4.9	26.2	14.2	42.4
경남	100.0	62.8	46.5	10.7	5.6	37.2	5.7	21.6	9.9	52.2
제주	100.0	61.9	35.6	17.1	9.3	38.1	6.0	23.1	8.9	41.6
전국	100.0	69.5	47.0	16.1	6.4	30.5	6.5	17.6	6.4	53.5

<부표9> 지역별 근속년수 분포와 평균값 (2010년 9월, 임금노동자, 단위: %, 년)

	근속년수 분포(%)						직장 유지율 (%)	평균값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근속 년수	경력 년수
서울	31.8	13.1	9.8	12.3	14.7	18.3	-13.4	5.21	7.62
부산	29.3	12.8	10.6	12.5	15.1	19.7	-9.7	5.52	8.58
대구	33.2	12.1	9.8	12.2	15.2	17.6	-15.6	5.09	7.36
인천	34.4	13.5	10.5	12.1	14.4	15.1	-19.3	4.48	7.11
광주	35.6	12.3	8.3	10.5	13.7	19.5	-16.1	5.50	7.07
대전	35.2	13.6	8.8	10.5	12.7	19.2	-16.0	5.32	7.75
울산	30.5	12.4	7.7	10.3	12.9	26.1	-4.5	7.08	8.95
경기	32.2	13.8	9.3	12.2	15.1	17.4	-14.7	5.07	7.29
강원	32.9	10.6	7.7	11.4	15.5	22.0	-10.9	5.91	7.82
충북	32.0	11.0	8.3	11.2	14.8	22.7	-9.4	5.98	7.82
충남	32.1	12.7	8.4	10.8	15.9	20.1	-12.0	5.53	7.04
전북	31.5	11.6	7.9	10.9	13.6	24.5	-7.0	6.39	7.91
전남	27.5	10.4	8.3	11.8	14.7	27.3	-0.2	7.01	8.70
경북	29.6	12.2	8.9	11.1	14.7	23.4	-6.2	6.29	7.81
경남	27.2	11.9	9.6	13.0	16.2	22.0	-5.2	6.01	7.73
제주	33.7	11.4	7.4	12.0	14.3	21.1	-12.6	5.81	8.00
전국	31.7	12.8	9.3	12.0	14.8	19.4	-12.3	5.44	7.62

<부표10> 지역별 비정규직 규모(2010년 9월, 임금노동자)

	수(천명)					비율(%)				
	기간제	시간제	임시	일용	비정규	기간제	시간제	임시	일용	비정규
서울	718	383	801	351	1,439	19.2	10.3	21.5	9.4	38.6
부산	145	123	246	120	463	12.6	10.7	21.4	10.4	40.2
대구	83	90	245	94	385	10.0	10.8	29.5	11.3	46.4
인천	172	105	299	81	475	17.0	10.4	29.5	8.0	46.8
광주	77	57	134	48	225	15.3	11.4	26.7	9.6	44.8
대전	89	62	130	58	249	16.4	11.4	24.0	10.7	45.9
울산	67	40	109	26	176	15.7	9.4	25.6	6.1	41.3
경기	691	376	1,023	330	1,696	16.2	8.8	24.0	7.7	39.8
강원	72	48	93	48	181	17.3	11.6	22.4	11.6	43.6
충북	66	45	96	47	186	13.7	9.4	20.0	9.8	38.7
충남	87	62	113	53	214	15.2	10.8	19.7	9.2	37.3
전북	58	50	110	55	193	12.7	10.9	24.1	12.0	42.2
전남	59	38	92	44	167	14.0	9.0	21.8	10.4	39.6
경북	90	76	160	79	289	11.8	10.0	21.0	10.4	38.0
경남	122	83	165	86	316	12.6	8.6	17.0	8.9	32.6
제주	37	21	48	26	92	21.3	12.1	27.6	14.9	52.9
전국	2,633	1,659	3,864	1,546	6,746	15.8	9.9	23.1	9.3	40.4

<부표11> 지역별 월평균 임금과 분위별 분포 (2010년 9월, 임금노동자, 단위: 만원, 배)

	평균 (만원)	분위별 월평균임금(만원)									배율(배)		
		10	20	30	40	50	60	70	80	90	p9010	p5010	p9050
서울	221	80	100	130	150	180	200	250	300	400	5.00	2.25	2.22
부산	187	70	100	120	140	150	200	200	250	350	5.00	2.14	2.33
대구	172	60	90	100	120	150	170	200	250	300	5.00	2.50	2.00
인천	183	70	100	120	150	157	190	200	250	300	4.29	2.25	1.91
광주	184	65	92	115	130	150	180	200	250	350	5.42	2.32	2.33
대전	199	70	100	114	146	160	200	230	300	400	5.71	2.29	2.50
울산	239	80	100	130	150	200	230	300	350	500	6.25	2.50	2.50
경기	214	80	100	130	150	180	200	250	300	400	5.00	2.25	2.22
강원	178	70	90	100	130	150	180	200	250	319	4.56	2.14	2.13
충북	193	80	100	120	150	160	200	220	280	350	4.38	2.00	2.19
충남	189	80	100	120	150	160	200	220	250	350	4.38	2.00	2.19
전북	186	70	100	110	130	150	180	200	280	350	5.00	2.14	2.33
전남	204	74	100	120	150	178	200	250	300	400	5.40	2.40	2.25
경북	188	70	100	110	140	150	200	210	270	350	5.00	2.14	2.33
경남	194	80	100	120	150	170	200	230	280	338	4.23	2.13	1.99
제주	177	70	100	115	130	150	170	200	250	338	4.82	2.14	2.25
전국	203	80	100	120	150	170	200	240	300	380	4.75	2.13	2.24

<부표12> 지역별 시간당 임금과 분위별 분포 (2010년 9월, 임금노동자, 단위: 원, 배)

	평균 (원)	분위별 시간당 임금(원)									배율(배)		
		10	20	30	40	50	60	70	80	90	p9010	p5010	p9050
서울	11,665	4,276	5,373	6,396	7,675	9,211	11,080	13,240	16,835	23,026	5.38	2.15	2.50
부산	9,651	3,838	4,720	5,757	6,716	7,675	9,211	10,942	13,199	17,270	4.50	2.00	2.25
대구	8,851	3,684	4,605	5,181	5,861	6,908	8,224	9,594	11,993	17,046	4.63	1.88	2.47
인천	9,403	4,087	4,989	5,757	6,908	7,700	9,187	10,593	12,664	17,191	4.21	1.88	2.23
광주	9,420	3,838	4,784	5,700	6,396	7,411	8,635	10,234	12,792	18,636	4.86	1.93	2.51
대전	10,434	3,838	4,797	5,757	6,908	8,189	9,594	11,513	15,140	20,148	5.25	2.13	2.46
울산	12,113	4,418	5,757	6,871	7,932	9,413	11,513	14,320	17,270	23,589	5.34	2.13	2.51
경기	11,024	4,477	5,526	6,503	7,675	8,827	10,362	12,281	15,351	20,148	4.50	1.97	2.28
강원	9,433	3,838	4,605	5,473	6,280	7,484	9,087	11,053	13,236	17,270	4.50	1.95	2.31
충북	10,042	4,104	5,007	5,757	6,908	8,208	9,420	11,513	14,391	19,189	4.68	2.00	2.34
충남	9,542	4,059	4,843	5,757	6,829	7,796	9,211	10,938	13,098	17,270	4.26	1.92	2.22
전북	9,603	3,838	4,605	5,526	6,396	7,675	9,092	11,509	14,391	18,267	4.76	2.00	2.38
전남	10,619	3,838	4,895	5,757	7,113	8,635	10,113	12,004	15,351	20,148	5.25	2.25	2.33
경북	9,583	3,838	4,605	5,757	6,446	7,675	9,118	11,104	13,816	17,270	4.50	2.00	2.25
경남	9,821	4,150	5,135	6,026	7,040	8,319	9,594	11,513	13,816	17,270	4.16	2.00	2.08
제주	9,256	3,838	4,761	5,523	6,396	7,196	8,566	10,264	12,808	17,270	4.50	1.88	2.40
전국	10,504	4,094	5,117	5,987	7,164	8,528	9,738	11,513	14,391	19,572	4.78	2.08	2.30

<부표13> 지역별 저임금계층과 최저임금 미달자 (2010년 9월, 임금노동자, 단위: 천명)

	월평균임금 기준			시간당 임금 기준			최저임금 4,110원 미만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서울	855	1,829	1,049	803	1,732	1,162	319
부산	342	585	224	331	565	247	140
대구	289	409	132	285	394	147	124
인천	279	560	176	264	544	199	101
광주	150	260	92	149	247	101	66
대전	162	253	127	152	244	140	65
울산	94	189	142	82	195	143	31
경기	940	2,210	1,110	886	2,118	1,213	319
강원	138	202	75	130	193	88	60
충북	130	247	104	124	234	117	47
충남	150	310	112	156	294	119	59
전북	143	216	98	138	206	108	62
전남	117	198	107	108	192	119	51
경북	237	363	162	225	362	170	102
경남	244	514	212	234	501	227	91
제주	52	91	32	54	83	36	21
전국	4,322	8,436	3,954	4,121	8,104	4,336	1,658

<부표14> 지역별 저임금계층과 최저임금 미달자 분포(2010년 9월, 임금노동자, 단위: %)

	월평균임금 기준			시간당 임금 기준			최저임금 4,110원 미만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서울	22.9	49.0	28.1	21.7	46.8	31.4	8.6
부산	29.7	50.8	19.5	29.0	49.4	21.6	12.2
대구	34.8	49.3	15.9	34.5	47.7	17.8	15.0
인천	27.5	55.2	17.3	26.2	54.0	19.8	10.0
광주	29.9	51.8	18.3	30.0	49.7	20.3	13.3
대전	29.9	46.7	23.4	28.4	45.5	26.1	12.1
울산	22.1	44.5	33.4	19.5	46.4	34.0	7.4
경기	22.1	51.9	26.1	21.0	50.2	28.8	7.6
강원	33.3	48.7	18.1	31.6	47.0	21.4	14.6
충북	27.0	51.4	21.6	26.1	49.3	24.6	9.9
충남	26.2	54.2	19.6	27.4	51.7	20.9	10.4
전북	31.3	47.3	21.4	30.5	45.6	23.9	13.7
전남	27.7	46.9	25.4	25.8	45.8	28.4	12.2
경북	31.1	47.6	21.3	29.7	47.8	22.5	13.5
경남	25.2	53.0	21.9	24.3	52.1	23.6	9.4
제주	29.7	52.0	18.3	31.2	48.0	20.8	12.2
전국	25.9	50.5	23.7	24.9	48.9	26.2	10.0

<부표15> 지역별 근로시간 평균값과 분포 (2010년 9월, 임금노동자, 단위: 천명)

	근로 시간 평균	근로시간 분포(천명)								
		-18 시간	18-35 시간	36-39 시간	40 시간	41-44 시간	45-48 시간	49-52 시간	53-56 시간	56+ 시간
서울	45.2	145	274	76	1,127	220	676	375	209	630
부산	45.9	39	92	26	264	81	258	98	101	192
대구	45.9	31	63	24	175	74	167	81	73	143
인천	46.4	34	78	28	259	68	188	83	67	208
광주	46.1	25	37	19	85	57	84	48	47	99
대전	45.2	23	46	16	129	52	95	53	39	90
울산	46.0	18	27	10	105	32	79	45	39	70
경기	46.0	160	260	102	998	404	868	423	300	747
강원	45.3	17	35	8	135	25	70	27	26	73
충북	45.7	16	35	10	142	38	82	40	31	87
충남	47.1	21	46	8	145	30	97	49	49	127
전북	45.8	18	36	12	129	28	75	40	33	86
전남	45.7	12	29	9	124	32	82	35	37	62
경북	46.6	20	60	16	210	43	144	66	61	141
경남	46.7	24	65	19	261	59	196	96	81	168
제주	45.7	8	15	5	34	15	35	17	18	29
전국	45.9	611	1,198	388	4,322	1,258	3,196	1,576	1,211	2,952

<부표16> 지역별 근로시간 평균값과 분포 (2010년 9월, 임금노동자, 단위: 천명)

	-18	18 -35	36 -39	40	41 -44	45 -48	49 -52	53 -56	56+	단 시간	장 시간	탈법 장시간
서울	3.9	7.3	2.0	30.2	5.9	18.1	10.0	5.6	16.9	11.2	32.5	22.5
부산	3.4	8.0	2.3	22.9	7.0	22.4	8.5	8.8	16.7	11.4	34.0	25.5
대구	3.7	7.6	2.9	21.1	8.9	20.1	9.7	8.8	17.2	11.3	35.7	26.0
인천	3.4	7.7	2.8	25.6	6.7	18.6	8.2	6.6	20.5	11.1	35.3	27.1
광주	5.0	7.4	3.8	17.0	11.4	16.8	9.6	9.4	19.8	12.4	38.7	29.1
대전	4.2	8.5	2.9	23.8	9.6	17.5	9.8	7.2	16.6	12.7	33.5	23.8
울산	4.2	6.4	2.4	24.7	7.5	18.6	10.6	9.2	16.5	10.6	36.2	25.6
경기	3.8	6.1	2.4	23.4	9.5	20.4	9.9	7.0	17.5	9.9	34.5	24.6
강원	4.1	8.4	1.9	32.5	6.0	16.8	6.5	6.3	17.5	12.5	30.3	23.8
충북	3.3	7.3	2.1	29.5	7.9	17.0	8.3	6.4	18.1	10.6	32.8	24.5
충남	3.7	8.0	1.4	25.3	5.2	17.0	8.6	8.6	22.2	11.7	39.3	30.8
전북	3.9	7.9	2.6	28.2	6.1	16.4	8.8	7.2	18.8	11.8	34.8	26.0
전남	2.8	6.9	2.1	29.4	7.6	19.4	8.3	8.8	14.7	9.7	31.8	23.5
경북	2.6	7.9	2.1	27.6	5.7	18.9	8.7	8.0	18.5	10.5	35.2	26.5
경남	2.5	6.7	2.0	26.9	6.1	20.2	9.9	8.4	17.3	9.2	35.6	25.7
제주	4.5	8.5	2.8	19.3	8.5	19.9	9.7	10.2	16.5	13.1	36.4	26.7
전국	3.7	7.2	2.3	25.9	7.5	19.1	9.4	7.2	17.7	10.8	34.3	24.9

<부표17> 지역별 성별 임금격차와 고용률 격차(2010년 9월, 단위: %)

	고용률			월평균임금			시간당 임금		
	남자	여자	격차	남자	여자	격차	남자	여자	격차
서울	69.4	49.4	20.0	265	167	37.1	13,631	9,200	32.5
부산	64.8	43.4	21.4	223	138	37.9	11,175	7,596	32.0
대구	66.6	47.6	18.9	208	126	39.6	10,320	7,004	32.1
인천	72.2	47.0	25.2	221	129	41.4	10,895	7,302	33.0
광주	66.4	48.4	18.0	223	137	38.8	10,967	7,520	31.4
대전	69.2	45.8	23.5	242	140	42.2	12,268	7,887	35.7
울산	72.5	44.2	28.3	297	137	53.8	14,548	7,860	46.0
경기	72.7	46.8	25.8	257	152	40.8	12,744	8,541	33.0
강원	67.8	49.2	18.6	212	134	36.9	10,919	7,448	31.8
충북	71.3	51.1	20.2	234	138	41.0	11,759	7,660	34.9
충남	73.0	51.5	21.4	226	136	40.1	11,150	7,258	34.9
전북	69.0	47.5	21.5	223	132	40.9	11,203	7,215	35.6
전남	72.1	51.9	20.2	246	133	45.7	12,493	7,455	40.3
경북	73.6	54.5	19.1	233	123	47.0	11,555	6,749	41.6
경남	69.7	49.3	20.5	232	135	41.9	11,419	7,402	35.2
제주	73.4	55.4	18.0	210	137	34.8	10,685	7,489	29.9
전국	70.4	48.4	22.0	244	146	40.3	12,247	8,097	33.9